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22
아가서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아 가 서

Song of Solomon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8:6)

שִׁמְנֵי כַחֲוֹתָם עַל-לִבִּי כַחֲוֹתָם עַל-זְרוּעָי
כִּי-עִזָּה כַמּוֹת אֲהַבָּה קָשָׁה כַשְׂאוֹל קִנְיָאָה
רִשְׁפִּיָּה רִשְׁפִּי אֵשׁ שְׁלֵה־בַתְּיָה :

아가 차례

아가 서론.....	〈18제〉 ...	343
제 1 장 슬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다.....	〈16제〉 ...	351
제 2 장 사랑이 성숙(成熟)하여 가다.....	〈19제〉 ...	359
제 3 장 사랑의 꿈이 결혼으로 실현되다.....	〈13제〉 ...	366
제 4 장 신랑과 신부의 대화.....	〈19제〉 ...	370
제 5 장 결혼 초기에 시련이 임하다.....	〈19제〉 ...	378
제 6 장 시련을 이기고 사랑이 회복되다.....	〈14제〉 ...	387
제 7 장 더욱 깊어지는 사랑.....	〈18제〉 ...	393

제 8 장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다.....	〈18제〉	398
-------	-------------------	-------	-----

아가 특별 자료 차례

아가 서론	〈화보 자료〉	아가의 여러 상징들.....	348
아가 서론	〈연구 자료〉	성경의 문학적 특성.....	349
제 1 장	〈화보 자료〉	목걸이를 한 여인.....	356
제 1 장	〈연구 자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357
제 2 장	〈화보 자료〉	작은 여우.....	364
제 2 장	〈연구 자료〉	아가에 나타난 자연관(自然觀).....	365

제 3 장	〈화보 자료〉	신랑과 신부	369
제 4 장	〈화보 자료〉	방패가 달린 망대	375
제 4 장	〈연구 자료〉	성경의 문학적 장르(genre)	376
제 5 장	〈화보 자료〉	문틈으로 손을 넣은 사람	383
제 5 장	〈연구 자료〉	올바른 성 윤리(性倫理)	384
제 6 장	〈화보 자료〉	신부(新婦)	391
제 6 장	〈연구 자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디르사(Tirzah)	392
제 7 장	〈화보 자료〉	포도밭의 망대	397
제 8 장	〈화보 자료〉	원통형 인장의 날인(捺印)	403
제 8 장	〈연구 자료〉	성경에 나타난 불[火]	404
제 8 장	〈연구 자료〉	히브리인들의 혼인 형태 및 풍습	405

아가 서론

1. ㉠ 본서의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립>으로 직역하면 ‘노래들 중의 노래’가 된다.
 (2) 히브리어에서 명사를 명사 소유격과 함께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 혹은 강조를 나타낸다 (참조, 창 9:25; 왕상 8:27; 젤 16:7). 따라서 <쉬르 하쉬립>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을 가진다.
 (3) 이 책의 70인역 제목은 <아스마 아스마톤>, 별게이트 역 제목은 <칸티쿰 칸티코뮴>으로 히브리어 제목을 직역한 것이고 개역 성경의 제목 ‘아가’(雅歌)는 의역한 것이다.

2. ㉠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본서의 분류를 설명하라.

- ㉠ (1) 본서는 히브리 성경에 있어서 본래 아가, 룻기, 애가, 전도서, 에스더로 구성된 ‘다섯 두루마리’(five Megilloth) 중, 제 1두루마리였다.
 (2) 이 ‘다섯 두루마리’는 유대인의 명절에 낭독되어졌던 것으로 아가는 유월절, 룻기는 오순절, 애가는 압월(Ab, 7월 15일-8월 15일) 제 9일(예루살렘이 함락된 날), 전도서는 장막절, 에스더는 부림절에 각각 낭독되었다.
 (3) 이와 같이 본서가 유대 종교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유월절에 낭독되었던 사실은 본서를 ‘다섯 두루마리’ 중에 첫권으로 분류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4)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를 사랑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아가는 특별히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로 여겨졌기 때문에 유월절에 애독되었다.

3. ㉠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저작자는 솔로몬인데, 지금까지 솔로몬의 저작설을 부인한 자료는 없었다.
 (2) 또한 본문 서두에 ‘솔로몬의 아가라’(1:1)고 하였고, 전통적인 견해도 솔로몬을 저작자로 보고 있다.
 (3) 이 책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1,005편의 일부일 것이다(왕상 4:32). 그리고 이 책에 담겨 있는 통찰력과 재능을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저작임을 알 수 있다.

4. ㉠ 본서의 저작 연대는 언제인가?

- ㉠ (1) 본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므로 저작 연대도 당연히 그의 통치 시대(B. C. 970-931) 중에 속한다.
 (2) 본서에 나타난 지명들, 즉 예루살렘, 요단 근처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포괄하는 다양한 지리적 언급은 통일 왕국의 광대한 영역과 일치하는데 이 점도 본서의 저작자가 솔로몬이라는 사실에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3) 특별히 본서에 나타난 여러 내용들을 통해 더욱 세밀한 저작 연대를 알 수 있다.
 (4) 이 책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틴 북부의 아름다운 전원(4:8), 왕비와 비빈의 수효(6:8), 왕의 순수한 애정(6:9) 등에 대한 묘사는 젊은 솔로몬 왕과 그의 초기 통치 시대의 시대상을 나타내 주고 있다.
 (5) 따라서 본서의 저작 시기는 솔로몬 왕 통치 시대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B. C. 970-960년경)인 것으로 추정된다.

5. ㉠ 본서의 통일성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일부 진보주의 학자들(T. J. Meek 등)은 본서가 히브리의 민속시로 결혼 축제의 예문으로

전수되어 왔으며 그러는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수집되어진 노래 모음집이라고 주장하면서 본서의 통일성을 부정한다.

- (2) 그러나 이 주장은 다른 학자들(Zöckler 등)에 의해 반박되어졌다. 아가는 많은 노래들의 수집이 아니고 보석을 펜 것과 같이(Herder)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품이다.
- (3) 본서에는 동일한 후렴귀가 2:7;3:5;8:4에서 각각 발견된다. 또한 동일한 시적 이미지가 본문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인물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아가'는 예술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견실하게 다져진 시적 통일성을 지닌 노래이다. 고대로부터 성경으로 승인되어 온 '아가의 통일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6. **㉠** 본서의 정경성에 대하여 논술하라.

- ㉠** (1) 본서는 유대인의 히브리 성경의 성문서 부분에 두루마리 중 한 권으로 수록되어 있던 것으로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서 낭독되어졌다.
- (2) 구약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가의 정경성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 (3) 그러나 A. D. 90년 얄미아(Jammia)에서 최초로 아가서의 정경성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였다. 그 당시 아가서의 정경성을 옹호했던 랍비 아키바(Akiba)는 '모든 성문서들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거룩한 것들 중의 거룩한 것(Holy of Holies)'이라고 말하였다.
- (4) 그 이후에도 아가서의 정경성은 심심치 않게 논의되다가 종교 개혁 당시 '카스틸리오'(S. Castellio)에 의하여 최초로 아가를 성경에서 제외한 사건이 발생했다(1544년).
- (5) 그로 인해 그는 칼빈에 의해 이단으로 정죄되고 신교에서 추방되었다.
- (6) 그 후에도 1723년 휘스톤(Whiston), 1771년 제플러(Semler), 1879년 로이스(Reass) 등이 본서의 정경성을 부인하였는데 그 이유는 본서의 영적 의미를 보지 못한 때문이다.

7. **㉠** 본서는 문학에서 어떤 장르에 속하는가?

- ㉠** (1) 어떤 학자들은 본서가 상연되기 위해 쓰여진 희곡이라고 했다(Böttcher, Renan). 그러나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상연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우리가 읊기를 희곡이라고 부를 수 없듯이 아가서도 희곡이라고 부를 수 없다.
- (2) 또 본서를 결혼의 축하나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목가적인 노래나 민속시 혹은 축제의 예문이라고 볼 수도 없다.
- (3) 이와 같이 아가서는 원래 전원시도 드라마도 아니다. 전원 생활의 모습은 그 자체가 단편적으로 간단하게 언급되었기에 전원시로도 볼 수 없다.
- (4) 본서의 문학 형식은 이 작품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좀더 차원 높은 문제 안에서 발견된다. 즉 본서는 인간의 사랑과 정서를 종교적 목적에서 채택한 것이다.
- (5) 본서는 희곡이나 민속시나 전원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인격적 관계를 주제로 한 '연애시'라고 보아야 한다.

8.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이 책의 주제는 한 마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남녀의 사랑이 주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아가에 있는 분명한 애정적인 성격 때문에 유대교의 박사들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아가를 읽지 말도록 권고했다.
- (3) 그러나 본서의 주제에서 남녀의 사랑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전제되듯이 30세가 되지 못한 소년들도 본서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 12:2)을 배울 수 있다.
- (4) 그럼으로써 소년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부딪혀 오는 '애정 문제'에 신앙적으로 적용하며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참조, 딤후 6:17).
- (5) 이 책을 목상하는 젊은이들은 참된 애정관(愛情觀)과 결혼관을 이해하게 될 것이고 궁

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한 인생관(갈2:20)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9. ㉠ 본서의 내용이 전해 주는 중심 사상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장면들은 구애(求愛)와 결혼에 있어서의 사랑의 기쁨을 묘사하면서 금욕주의와 쾌락주의의 양극단에 대한 중용의 원리를 제시한다.
- (2) 즉 육체적 사랑은 그 자체로서 선하고 순결한 것이나(약1:17) 오직 부부 관계 내에서만 정당한 위치를 갖도록 분명히 확증되고 있다.
- (3) 이러한 사랑 관계에 있는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은 그들의 정당성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나타내 보인다.
- (4) 그러나 솔람미 여인이 교회, 솔로몬이 예수로 동일시되지는 않는다. 다만 두 사람의 사랑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한 예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것이 바로 본서의 중심 사상이다.

10. ㉠ 본서를 어떤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 ㉠ (1) 아가는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애매한 책으로 그 해석 방법도 매우 다양하게 시도되어 왔다. 그 주요한 해석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
- (2) 첫째는 풍유적(알레고리칼) 해석법이다. 이 방법은 고대 유대인 사이에서 발생되어 현재의 기독교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아가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 사이에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을 풍유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둘째는 극적 해석법이다. 이 방법은 아가의 문학적 특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 아가를 한편의 드라마로 해석하는 것으로 주로 인문주의자에 의해 주장되었다. 이 방법은 아가의 영적 의미를 놓치는 결점을 안고 있다.
- (4) 위의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 사이에 등장한 것이 상징적 혹은 모형적 해석법이다. 이 방법은 아가서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모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해석하되 풍류적 해석법보다는 본문의 의미에 충실한 것이 특징이다.
- (5) 세 가지의 해석법이 각각 일리를 지니고 있으나 상징적 해석법을 중심으로 그 외 두 가지 해석법의 장점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 본서의 등장 인물은 몇 명인가?

- ㉠ (1) 본서의 등장 인물은 본서의 해석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 (2) 풍유적 해석에서는 솔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 두 사람을 본서의 주인공으로 본다. 이 솔로몬 왕이 때로는 목자로 분장되어 등장한다. 상징적 해석법도 그와 같이 본다. 이때 예루살렘의 딸들은 솔로몬 왕궁의 궁녀들을 가리킨다.
- (3) 한편 극적 해석에서는 목자를 제 3의 등장 인물로 제시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비록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취했으나 솔람미 여인은 끝까지 옛 애인인 목자를 잊지 못한다.
- (4) 만일 위와 같이 아가를 3인극으로 보면 아가서의 주제인 사랑은 세사적 사랑이 된다. 그리고 솔로몬은 순결한 여자를 유혹하는 극단의 인물로 표현되어 본서의 정경의 위치가 부정되고 만다.
- (5) 따라서 본서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제할 때 3인극 이론(목자설)은 배격되어야 한다. 즉 본서의 주인공은 2명이고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 보조역인 것이다.

12. ㉠ 본서의 특징을 열거하라.

- ㉠ (1) 아가는 히브리 문학 중에도 매우 독특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아름다운 서정시로서 심미적 상징으로 가득 차 있다.
- (2) 빈번한 반복과 후렴과 응답의 노래가 본서의 특징이다.
- (3) 본서에는 은유가 섞인 훌륭한 비유적 표현과 자연에 대한 예찬이 가득 차 있으며 본서 전체를 통하여 자연은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4) 본서의 지리적 배경은 미묘하여 때로는 유다, 이스라엘 혹은 요단 동편, 수리아로 나타난다. 즉 본서의 배경은 히브리어기 보다 팔레스타인요 히브리 민족에 한한 것만은 아니다.

13. ㉠ 자연은 솔로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 (1) 솔로몬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깊이 심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식물과 동물에 관한 지식을 소유하였다.
 (2) 그러나 이 지식은 오늘날과 같은 학문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식물과 동물의 상태를 통한 종교적, 도덕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한다.
 (3) 이와 같은 사실은 열왕기 저자도 왕상 4:32, 33에서 언급한 바 있다.
 (4) 본서에 나타난 동식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식물 - 호도, 니그나로 기름, 백향목, 들꽃, 밀, 구브로 꽃, 크로크스 꽃, 유향, 몰약, 나드, 석류, 백합, 무화과, 사과, 삼나무, 포도나무, 멘드레이크, 창포, 육계
 ② 동물 - 표범, 말, 까마귀, 염소, 어린 숫사슴, 암사슴, 여우, 들비둘기, 사자, 비둘기, 영양
 (5) 이외에도 본서에는 대리석, 자색옥, 사파이어와 같은 성경에서 단1회만 나오는 진귀한 광물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14. ㉠ 본서와 다른 성경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 ㉠ (1) 본서는 그 형식이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의 부분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2) 이사야 5장, 50장 그리고 62장과 호세아서의 처음 몇 장(1-3장)은 말라기서의 서두(1:2)와 더불어 우리에게 아가와 일관된 비유법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3) 이와 같이 아가에 있는 결혼의 상징적 의미는 언약의 충실성을 권고하는 일과 관련하여 구약 전체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4) 여기에서 우리는 아가와 다른 성경과의 통일성을 느끼게 되며 아가의 영적 메시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15. ㉠ 본서와 시 45편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 ㉠ (1) 시 45편은 '사랑의 노래' 혹은 '결혼 축하시'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다.
 (2) 이 시편은 솔로몬의 결혼이나 이스라엘 중 어떤 왕의 결혼을 두고 저술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3) 아가와 시 45편의 밀접한 유사성은 양자의 상징적 특성을 확고하게 해준다.
 (4) 예를 들어 '인생보다 아름다워' (시 45:2)와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아 5:10)의 표현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다.
 (5) 또한 입술의 사랑스러움(시 45:2; 아 1:2)은 대화의 훌륭함을 상징한다.
 (6) 이러한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는 시 45편에서 아가 해석의 가장 좋은 열쇠를 발견할 수 있다. 즉 시 45편이 신약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고 있는데 따라서 아가도 그리스도께 적용되어야 한다.

16. ㉠ 본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라.

- ㉠ (1) 본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본서 안에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으며 다시 그 시의 내용에 따라 소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
 (2) 첫째 부분(1:1-3:5)은 첫사랑의 기쁨을 묘사한다. 사랑받는 자 슬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그를 만나게 되고 그녀는 애정의 기쁨을 노래한다.
 (3) 둘째 부분(3:6-5:1)은 결혼의 기쁨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먼저 혼인 잔치에 대한 묘사를 보고 이어 신부와 신랑이 서로간에 기뻐하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4) 세째 부분(5:2-8:14)은 헤어짐과 다시 만남에 대한 내용이다. 아내는 부주의로 신랑과 떨어져 있게 되고 결혼의 기쁨이 잠시 사라진다. 다시금 만난 남편과 아내는 완전한 사

랑으로 성숙해간다.

- (5) 첫째 부분에서 얻어진 사랑이 둘째 부분에서 결혼으로 성취되고 셋째 부분에서 시련을 당한다. 그러나 사랑을 잃어버릴 위협에 처해 있다가도 드디어 회복되고 다시금 기쁨으로 충만해진다.

17. **㉠** 본서의 내용을 세분하라.

㉠ (1) 제목 / 1:1

(2) 첫사랑의 기쁨 / 1:2-3:5

- ① 술람미 여인의 독백 / 1:2-4 a
- ② 예루살렘 딸들이 왕에게 / 1:4 b
- ③ 술람미 여인 / 1:5-7
- ④ 예루살렘의 딸들 / 1:8
- 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 1:9, 10
- ⑥ 예루살렘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 1:11
- ⑦ 술람미 여인 / 1:12-14
- ⑧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 1:15
- ⑨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 1:16-2:1
- ⑩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 2:2
- ⑪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 2:3-6
- ⑫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2:7
- ⑬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게 / 2:8-13
- ⑭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 2:14
- ⑮ 합창 / 2: 15
- ⑯ 술람미 여인의 독백 / 2: 16-3:5

(3) 결혼 생활의 기쁨 / 3:6-5:1

- ① 결혼 예식의 행렬 / 3:6-11
- ② 신방에 든 후 솔로몬이 신부에게 / 4:1-15
- ③ 신부가 솔로몬에게 / 4: 16
- ④ 솔로몬이 신부에게 / 5:1 a
- ⑤ 하나님이 부부에게 / 5:1 b

(4) 헤어짐과 다시 만남 / 5:2- 8:14

- ①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아내의 실수 / 5:2-8
- ②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 - 남편은 어떤 사람인가 / 5:9
- ③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남편이 얼마나 멋진가 / 5:10-16
- ④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 / 6:1
- ⑤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6:2, 3
- ⑥ 다시 만난 후 남편이 아내에게 / 6:4-10
- ⑦ 아내의 독백 / 6:11, 12
- ⑧ 예루살렘의 딸들이 아내에게 / 6:13
- ⑨ 왕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6:14
- ⑩ 남편이 아내에게 / 7:1-9a
- ⑪ 아내가 남편에게 / 7:9b- 8:3
- ⑫ 아내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 8:4
- ⑬ 마을 사람들의 질문 / 8:5 a

- ⑭ 솔로몬의 회상 / 8:5 b
- ⑮ 아내가 남편에게 / 8:6, 7
- ⑯ 솔라미 여인의 남자 형제들 / 8:8, 9
- ⑰ 아내가 모든 이에게 / 8:11, 12
- ⑱ 남편이 아내에게 / 8:13
- ⑲ 아내가 남편에게 / 8:14

18. **Q** 본서의 요절은 무엇인가?

- A** '너는 나를 인(印) 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8:6).

화보자료

아가의 여러 상징들. 본서에 나타난 여러 짐승, 나무,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무늬를 놓아 짠 아래의 벽걸이 융단(tapestry)은 1925년에 제작된 것으로서 폴린 니에의 작품이다.



본서는 위의 사진에 나타난 것과 같은 여러 소재들, 즉 작은 여우(2:15), 비둘기(2:14), 백합화(6:2)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저자가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재질이 있는 사람임을 보여 준다.

연구자료

성경의 문학적 특성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문학서라고 할 수 있다. 일찌기 토마스 드 퀴시(Thomas De Quincey)는 문학을 '깨우침을 주는 지식의 문학'과 '감동을 주는 힘의 문학'으로 구분하였는데 성경은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다. 성경은 독자들에게 풍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다. 이와 동시에 성경은 수많은 독자들을 감동시키기도 하는데 이는 성령의 감동 감화시키시는 역사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경을 하나의 문학서로 간주할 때 그것이 지니고 있는 문학적 특성은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이제 본고(本稿)를 통해 이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성경의 일반적인 문학적 특성

① 보편성(universality) : 성경의 일반적인 문학적 특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다. 성경만큼 온갖 상황 속에서 생활하는 각양 각색의 독자들에게 읽혀지는 책은 없다. 지식인이든 무식자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성경 말씀은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읽혀지고 있다. 이 같은 성경은 1980년 통제를 기준하여 볼 때 276개 언어로 성경 전권이 번역되었으며 신약 성경만은 759개 언어로, 족성경은 1,811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② 숭고성(sublimity) : 성경의 일반적인 문학적 특성 가운데 또 다른 하나는 사상 및 표현에 있어서의 숭고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숭고성이란 책 자체가 지니고 있는 위대성과 연결된 문학적 특질을 가리킨다. 위대한 시인이자 비평가이기도 한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idge)는 '이사야서나 히브리서 등을 읽은 후 호머(Homeros)나 버질(Vergilius)의 작품은 매우 단조로운 것으로 생각되었고... 밀턴(John Milton)의 작품은 심심풀이로나 읽을 만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라고 말하였다. 사실 롱기누스(Longinus)가 말한 것처럼 '숭고성이란 위대한 영혼의 메아리'이니 만일 성경이 참으로 숭고한 책이 아니라면 이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이처럼 성경이 숭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세와 다윗, 이사야,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등과 같은 성경 저자들이 숭고한 영혼을 소유한 자들이었던 탓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이다(딤후 3:16).

③ 완전성(integrity) : 여기서 말하는 완전성이란 기술상(記述上)에 있어서의 정직성을 의미한다. 비록 성경의 표현 방식이 다양하기는 하지만 결코 거짓을 진실로 가장하여 표현해 놓은 부분은 없다. 성경은 아브라함(창 12:10-20), 모세(민 20:7-13), 다윗

(삼하11:1-27;24:1-25), 베드로(갈 2:11-13)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의 죄에 대해서까지도 솔직 담백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성경은 인간 행위의 내면적인 동기를 가장 윤리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는 단지 외적 현실에 상응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닌 영혼과 심중(心中)의 진리가 되는 것이다.

2. 성경의 특수한 문학적 특성

① 신중심적(theocentric) :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창 1:1)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를 비는 기원(계 22:21)으로 끝난다. 구약은 그 초점이 메시아의 도래(到來)에 맞춰져 있으며 신약은 메시아의 재림(再臨)에 맞춰져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대상 28:9;렘 32:17)과 인자하심(대상 16:34),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인간 구원의 역사(창 3:21;요 3:16) 등을 증거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고 교훈하였다. 이처럼 성경의 핵심이 신중심적인 까닭은 성경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록(自己啓示錄)이기 때문이다.

② 직관적(intuitive) : 성경은 그 사상 양식에 있어서 직관적이다. 비록 성경 곳곳에 페르시아적, 헬라적 사상과 유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의 사상 형태는 그것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서 인간의 영혼에 대고 직접 말하고 깨닫게 하는 직관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므로 그 사고(思考) 형태가 이 세상의 철학에 입각한 사고와는 아주 다르다. 한편 인간의 마음속에는 일반적인 이성(理性)과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분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능력에 의해서이다. 이러한 능력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신화적인 용어로 일명 '신 지식'(knowledge of God)이라고 한다(롬 1:19).

③ 초월적(transcendent) : 성경에는 시문(詩文), 역사, 율법, 잠언, 비유, 묵시, 예언, 서신, 지혜 문학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 양식이 사용되었지만 성경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그러한 문학 양식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초월한다. 한 예로 시가서의 형식 측면 읊기는 그 어떤 극시(劇詩)도 갖지 못한 심오한 영적 진리를 안고 있다. 신약의 저자들은 '사랑'(헬, 아가페), '말씀'(헬, 로고스), '생명'(헬, 조에) 등과 같은 세속적인 단어를 하나님과 관계된 영적인 의미로 바꾸어 놓았다. 이처럼 성경은 일반 문학과는 다른 초월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제 1 장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다

단락구분 1 제목 / 2-4 솔람미 여인과 친구들의 고백 / 5-7 솔람미 여인의 부탁 / 8 친구들의 대답 / 9-11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을 예찬하다 / 12-14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예찬하다 / 15 솔람미 여인의 어여쁜 눈 / 16-17 솔로몬의 집

1 솔로몬의 아가라
 2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3 내 기쁨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4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제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도 같구나
 6 내가 일광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흠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7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의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고하라 내가 네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리운 자같이 되랴

8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새끼를 먹일지니라
 9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10 네 두 뺨은 맑은 머리털로, 네 목은 구슬 꿰미로 아름답구나
 11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12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쁨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13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냥이요
 14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언제나 포도원의 고별화 송이로구나
 15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16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17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1. ㉠ 본장의 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 ㉠ (1) 본장은 구약 부분(1:2-3:5)의 도입부이다.
 (2) 전반부(2-8절)에서는 솔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를 만나고 싶어하며 찾는다.
 (3) 후반부에서는(9-17절)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에게 나타나 서로의 사랑을 고백한다.
 (4)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하는 존재이다. 주님께서도 내가 찾는 것 이상으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보고 싶어 하신다.
 (5) 주님은 찾는 자에게 나타나시고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다. 남녀간의 사랑(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순수한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 본서의 표제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본서는 '솔로몬의 아가(雅歌)라' 하는 표제어로 시작되고 있다. '아가'의 뜻에 대하여는 서론 ㉠1을 참조하라.
 (2) '솔로몬의' 라는 말은 '솔로몬으로 말미암은'으로 번역될 수 있으며 본서의 저작자가 솔로몬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
 (3) 그 말은 또한 '솔로몬에 대한'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가 빼어난 자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진’ 그리스도(골2:3)의 상징이다.

(4) 그러므로 본서의 표제어는 본서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노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인 것을 보여 주고 있다.

3. **㉠**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그녀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노래하였는가? (2절)

㉠ (1) 술람미 여인은 그녀에 대한 솔로몬의 소망(所望)이 입맞춤이라고 노래하였다.

(2) 당시 히브리 사회에 있어서 사람의 입술이나 볼, 손, 발에 입술을 대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나 존경의 표시였다.

(3) 그런 까닭에 흔히 사람을 맞이하거나 작별할 때 입맞춤을 하였고 이때에 입맞춤은 보통 성적(性的)인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참조, ㉠4).

(4) 그러나 이와 같은 일상적인 경우 외에 행실이 나쁜 여자의 유혹하는 입맞춤(잠7:13)과 연인들의 낭만적인 입맞춤이 있었다. 바로 술람미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입맞춤이 연인과의 입맞춤에 해당된다.

(5) 이때에 입맞춤은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다. 따라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입맞추기를 원한 것은 그녀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낸다.

(6) 한편 이 입맞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된 성도들 사이의 영적인 교통을 상징한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과 입맞춤을 소망했듯이 성도들의 연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언제나 성도들과 영적인 교통이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참조, 요 14:21).

(7)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놓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초보(初步)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계3:20).

4. **㉠** 성경에 나타난 일상적(日常的) 입맞춤에 관해 도표로 제시하라(2절).

㉠ (1)

관 계	관 련 귀 절	실 례(實例)
자식 ↔ 부모	창 27:26, 27	야곱이 이삭에게
	창 50:1	요셉이 야곱에게
	왕상 19:20	엘리사가 그의 부모에게
조부 ↔ 손자	삼하 14:33	다윗이 압살롬에게
	창 31:28, 55	라반이 그의 손자들과 딸에게
형제 ↔ 형제	창 48:10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창 33:4	에서가 야곱에게
	창 45:15	요셉이 형들에게
남자 ↔ 사촌	출 4:27	모세가 아론에게
	창 29:11	야곱이 라헬에게
남자 ↔ 생질	창 29:13	라반이 야곱에게
시모 ↔ 며느리	룻 1:9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2) 한편 입맞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감정의 표현이 수반되기도 했다.

① 상대방을 붙잡고 포옹함(창29:13; 33:4; 48:10; 삼하15:5; 20:9; 잠7:13)

② 포옹한 채 울음을 터뜨림(창33:4)

③ 그냥 울기만 함(창29:11; 45:15; 50:1; 삼상20:41; 룻1:9, 14)

④ 허리를 굽히고 절함(출18:7; 삼상20:41; 삼하14:33; 왕상19:18)

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상대방의 티끌을 핥음(사49:23; 미7:17)

5. **㉠** 사랑과 포도주는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가? (2b절)

- Ⓐ (1) 솔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욱 달콤하다고 고백했다.
 (2) 포도주는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즐거움의 표상이지만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이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될 수 없다.
 (3)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격적인 사랑에서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 완전한 인격적인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4)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고상한 기쁨의 원천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기쁨의 열매를 맺게하는 성령(갈 5:22)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5) 그러므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고 명령하였다.
 (6) 우리는 육감적인 쾌락보다 인격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누려야 한다.
6. ㉠ **치녀들이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1) 솔로몬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이 아름다운 향기를 발하였고 그의 이름이 따라 놓은 향수 같았기 때문이다.
 (2) 솔로몬은 외모가 매우 존귀하고 아름다웠는데 그의 내적인 인품은 그것보다 더욱 뛰어났기에 치녀들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3) 우리 주 그리스도는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을 가지신 분이다. 그의 외적인 능력과 권세도 뛰어나지만 그의 내적인 사랑과 관심의 지극하심은 성도들을 감격하게 한다.
 (4) 성도들은 외적인 것 못지 않게 내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벧전 3:4; 고후 4:16).
 (5) 연인(戀人)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을 창조하는 것은 외적인 용모를 능가하는 속사람의 아름다움이다. 아름다운 인격은 순결한 자의 마음에 참사랑과 애정을 불러일으킨다.
7. ㉠ **솔람미 여인과 친구들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4절)**
 Ⓐ (1) 솔람미 여인은 지금 그녀를 둘러싼 '치녀'들과 함께 솔로몬 왕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을 하고 있다.
 (2) 솔로몬은 이미 솔람미 여인에게 왕 자신이 거주하는 침궁(寢宮, chamber) 곧 내실로 들어오기를 허락하였다.
 (3) 그러나 솔람미 여인은 다시 '나를 인도하여 주시요'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그녀는 자신의 부족함과 왕의 권위를 인정하여 왕의 뒤를 따르기만을 원했던 것이다.
 (4) 성도들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앞설 수는 없다. 비록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다 위임하셨어도(마 10:1; 눅 10:19)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야 한다(엡 6:18).
 (5) 이러한 질서의 원리는 연인간에 혹은 부부간에도 적용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듯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고전 11:3).
 (6) 이 질서에 따라서 아내는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받았으나 모든 일의 결정권을 남편에게 부탁함으로써 가정의 화평과 행복을 이룰 수 있다.
8. ㉠ **솔람미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5,6절)**
 Ⓐ (1) 위대한 왕의 사랑을 받은 이 시골 처녀는 자기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솔직히 고백했다.
 (2) 그녀는 집안의 포도원지기로 야외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햇빛이 그녀의 얼굴과 피부를 태워 검게 되었다.
 (3) 그러나 한편 그녀는 자신의 순수한 자연미(自然美)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였다.
 (4)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고백으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그 때에 성도들은 겸손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 안에 있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

식하게 될 것이다.

- (5) 비록 세상의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 성도들의 겉사람이 후패해진다 할지라도 그들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후 4:16-18). 이것은 우리의 고백이자 간증이며 자랑이다.

9. **㉠ 자신의 모습을 고백한 후 솔라미 여인은 왕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7절)**

- ㉠** (1) 왕은 지금 여인과 함께 있지 않다. 그러나 여인의 마음은 왕을 향해 있다. 그녀는 현재 자기 곁에 없는 왕에게 마음이 쏠려 있어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호소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다.
- (2) 여인은 '내 마음의 사랑하는 자여' 라는 매우 강렬한 사랑으로 솔로몬을 부르면서 솔로몬이 양 떼를 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다.
- (3)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그 아비 다윗과 같이 목자로 상징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로 고백하기도 하였다(시 23:1).
- (4)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밝히셨다(요 10:11). 그는 양 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던 것이다. 그는 그의 백성을 아시며 또한 그의 백성은 그를 안다(요 10:3, 4).
- (5) 우리들은 이 선한 목자를 열망하면서 항상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의 사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다.

10. **㉠ 친구들은 솔라미 여인에게 어떤 말로 충고하였는가? (8절)**

- ㉠** (1) 여인의 고백과 소원을 들은 그의 친구들- 예루살렘의 딸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충고의 대답을 하였다.
- (2) 즉 그 충고란 왕의 양 떼가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면 사랑하는 왕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 (3) 그리고 그들은 여인에게 그녀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여야 할 것이라고 충고하였다.
- (4)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앞서간 신앙 선배들의 삶을 본받아야 한다(고전 11:1).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할 때 우리는 주님을 가장 확실히 알게 될 것이다.
- (5)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양을 먹이라'는 음성을 들었다(요 21:15-17).
- (6) 참된 연인의 관계도 이러한 겸손과 진실된 봉사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11. **㉠ 솔라미 여인의 고백과 열망에 대하여 솔로몬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9-11절)**

- ㉠** (1) 앞 부분까지는 솔라미 여인이 궁중의 여인들과 함께 왕을 기다리면서 왕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2) 이제 솔로몬이 연회 장소에 나타나 자기 사랑을 고백하고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한다.
- (3) 솔로몬이 여인을 '내 사랑아'라고 부른 것은 아직 자기의 신부가 아닌 연인의 관계에서 솔라미 여인을 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 관계는 '사랑'으로 상징될 만큼 확실하고 변치 않는 관계이다.
- (4) 솔로몬은 여인을 바로의 날렵한 말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했으며 또한 그녀의 두 뺨과 목걸이로 장식된 목의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 (5) 이 얼굴과 목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외부적 면모와 믿음으로 하는 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연인처럼 사랑하시고 칭찬하신다.

12. **㉠ 솔로몬은 솔라미 여인에게 어떤 선물을 약속하였는가? (11절)**

- ㉠** (1) 솔라미 여인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금사슬 목걸이를 주되 둘레에 은을 박아 만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 (2) 본문에 '우리가'라고 한 것은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종들이 그 약속을 수행할 것을 의미하고 있다.

- (3) 여인은 그때 단지 시골 처녀들이 하는 순박한 장식만을 차고 있었기에 왕은 아주 값비싼 선물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때 그분으로부터 더욱 귀한 선물을 약속받는다(참조, 11:6).
- (5) 연인들의 관계에 있어서도 신앙과 영적 아름다움으로 교제할 때 그들의 기쁨과 행복은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13. **㉠** 여인은 자기를 찾아온 왕을 어떻게 맞이했는가? (12절)

- ㉠** (1) 솔로몬 왕은 연회장에 나타나 술람미 여인과 그녀의 친구들이 둘러앉은 식탁에 앉았다.
- (2) 그때 여인은 준비해 온 '값비싼 나도 기름'을 왕에게 부어 향수 냄새로 가득 채웠다.
- (3) '나도나무'는 북 인도와 동 인도에서 자라는 나무로 깃털로 덮인 줄기 부분이 뿌리 근처에서 나오고 거기서 향기가 발산된다.
- (4)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리고 식탁에 앉으신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어 그분께 향한 사랑과 환영의 뜻을 고백하였다(막14:3).
- (5)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나타남은 물질적 가치로 계산할 수 없는 고귀함이 있다. 그가 방문하시기를 고대하는 자들은 그들의 뜨거운 마음의 사랑으로 그리고 참된 영적 예배의 향기로써 응답해야 한다.

14. **㉠** 술람미 여인은 왕의 존귀함을 어떻게 고백했는가? (13,14절)

- ㉠** (1) 여인은 나도 기름의 향기로 왕을 기쁘게 하였고 그녀는 왕을 자기에게 '몰약 향낭' (沒藥香囊)이요 '고벨화 송이' 같이 존귀하다고 찬양했다.
- (2) '몰약 향낭' (향을 넣어 차는 주머니)은 그 향기로움과 치료의 특성 때문에 가슴에 간직되었다.
- (3) '고벨화'는 엔게디의 포도원에서 많이 자라나는, 식물로 높이가 2m 가량 자라며 꽃의 아름다움과 향기로 유명하다.
- (4) 시편 기자는 왕의 옷에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다고 고백했다(시 45:8).
- (5) 그리스도의 몸도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덮였었다(요19:39).
- (6)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은 영혼에 향기를 쏟는 것과 같다. 세상적인 어떠한 꽃이나 향기도 그리고 그 어떠한 아름다움도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다.

15. **㉠** 사모하고 기다리던 가운데 만난 두 연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사랑을 고백했는가? (15 - 17절)

- ㉠** (1) 왕이 먼저 여인을 '내 사랑아'로 부르면서 9절에 이어 다시 한번 여인의 순결함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칭찬했다(15절).
- (2) 여인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라는 말로 전에 친구들에게 하던 고백을(7절) 다시 확인했다(16절).
- (3) 이렇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평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사랑으로써 고백되어야 한다.
- (4) 신앙과 생활을 따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다. 신앙으로써 생활이 지배되며 생활으로써 신앙이 고백될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참된 신앙의 자세를 모든 이들에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16. **㉠** 왕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칭찬했는가? (15절)

- ㉠** (1) 왕은 여인의 아름다움을 감탄하면서 반복하여 칭찬하되 특별히 그녀의 눈에 찬사를 보내었다.
- (2) 여인의 눈은 비둘기처럼 은유하고 순수하며 사랑스러웠다. 이것은 왕이 간절하게 원하

고 사모했던 아름다움이었다(시 45:11).

- (3)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부로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원하셨다(엡 5:27).
- (4) 그러나 슬프게도 가시적(可視的)인 교회 안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며 흠이 없는 자가 아무도 없다.
- (5) 그러므로 교회의 진정한 순결과 거룩은 결국 흠없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이다(히 9:14).
- (6) 그러므로 신자에게 있어서의 의는 ‘믿음’ 밖에 없다(롬 3:28,30). 신자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순종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반사함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다.

화보자료

목걸이를 한 여인. 호화스런 목걸이를 한 애굽의 여인을 나타낸 부조로서 B.C. 2000년대의 것이다. 현재 루브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걸이는 일종의 장신구였는데(10, 11절; 사 3:18) 고대 애굽과 바벨론에서는 관리들이 목이나 가슴에 금사슬을 달기도 했다. 이때의 금사슬은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창 41:42; 단 5:7, 16, 29).

연구자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사랑

본서에 묘사된 남녀가 서로 지극히 사랑하는 모습은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예표하는 것이다. 본서에 그려진 대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뜨겁고도 아름다운 것이며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사랑 역시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이제 본서의 주제인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1. 용어(用語)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는 <아하바>인데 그 동사형 <아헵>은 '숨쉬다', '애착을 갖다', '기뻐하다' 등의 뜻을 갖는다. 그 외에 자주 쓰인 단어는 <헤세드>로서 (참조, 신 7:12; 삼상 20:8) '친절', '충의', '자비', '자애' 등을 의미한다. 헬라어로서 사랑을 나타내는 말은 <아가페>와 <필리아>, <에로스>가 있다. <아가페>는 보통 영적인 의미로 사용되어 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요 3:16) ②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사랑(살후 3:5; 요일 2:5) ③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요 15:10) ④ 사람에게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고후 5:14) ⑤ 이웃이나 친구에 대한 영적인 사랑(롬 13:7; 갈 5:14) 등을 나타낸다. 그리고 <필리아>는 우정의 차원에서 사랑하거나 기뻐하고 동경하는 사랑을 의미하며, <에로스>는 남녀간의 열정적인 갈망, 즉 성적인 사랑을 가리킨다.

2. 속성(屬性)

사랑은 본래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단 몇 마디로 설명될 수는 없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중의 하나이므로(요일 4:8, 16)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알게 되며 따라서 사랑의 정의(定義)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사도 바울이 고전 13장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사랑은 은유하고 오래 참으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약하고 불의한 것들을 기뻐하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기뻐하는 것이다(고전 13:4-7).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의 속성이 진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된다(비교, 요 3:16; 엡 5:2).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 항에서 다루어진다.

3. 하나님의 사랑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성품을 '생명'(요 1:4), '빛'(요일 1:5), '진리'(요일 1:6), '사랑'(요일 4:8) 등으로 묘사하였다.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은 서로 연관이 있는데 가장 근본된 성품은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참조, 신 4:37) 그들을 보살피시며(호 11:4) 구원하신 것은 모두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셨으며 또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다(롬 5:8; 딤후 3:3, 4). 이제 이 같은 사실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① 언약과 사랑 :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참조, 창 15장; 신 7:7, 8).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들을(창 15:18; 출 19:5; 신 30:1-9; 삼하 7:14-19) 기억하시어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을 베푸셨다(시 106:45).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여 자신의 약속을 반복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언약은 영원한 효력을 지니게되며 따라서 그분의 사랑도 영원한 것이 된다(대하 5:13; 스 3:11; 시 106:1; 117:2; 렘 33:11).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자들은 그 사랑에 근거한 소망을 갖게 되며(시 130:7)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보호하신다(시 33:18, 22). 이러한 언약과 소망, 사랑과의 관계는 그리스도를 믿어 새 언약 안에 들어간 신자들에게도 적용되는 원리이다(엡 2:11-20; 히 10:11-22).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시 '궁핍과 진리'로 말미암아 의롭게 인정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참조, 시 85:10; 계 19:1-16).

② 진리와 사랑 : 본래 사랑은 '관계성'의 개념이다. 일방적인 사랑은 완전할 수 없으며 상호간의 교호(交互) 작용이 있어야 그 사랑은 사랑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관계성'으로의 사랑은 구약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형태로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인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랑의 의무가 지워진 것이다(신 27:9, 10; 29:29, 30). 그리고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러한 관계성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을 아끼듯이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형태로 나타났다(마 22:37-39; 눅 10:27). 이렇듯이 기독교는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랑의 종교이다.

3. 결론(結論)

사랑이 단지 관념적인 사고(思考)에 그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또한 명령에 의해 강제되어진 사랑도 참다운 사랑이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 없이도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할 것이다. 따라서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의무의 차원을 넘어선 주께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출 20:6; 신 5:10; 느 1:5; 단 9:4).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셨던 물음(요 21:15-17)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사랑이 성숙(成熟)하여 가다

단락구분 1 여인의 고백 / 2 왕의 화답 / 3-7 여인의 사무친 연정(戀情) / 8-9 여인의 회고 / 10-14 여인이 왕의 말을 기억하여 슬회(迷悵)하다 / 15 포도원 노래 / 16-17 여인의 독백

1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2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4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5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낫음이니라
 6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7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혼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8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9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10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1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12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13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 바위 틈 낭떠러지 온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15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16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17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돌아와서 베테르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이여라

1. ㉠ 본장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는가?

- ㉠ (1) 전장에서 슬람미 여인은 사모하던 연인 슬로몬 왕을 왕궁의 연회 장소에서 만난 후 아름다운 집의 푸른 침상 위에 앉아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었다.
 (2) 본장에서는 그들의 사랑이 대화를 통해 더욱 성숙하여지며 둘은 변할 수 없는 관계임을 확인한다(16절).
 (3) 특별히 본장에는 왕과 여인이 처음 만났던 때의 정경(情景)이 소개되고 있다(8-15절).
 (4) 이같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성숙하여 간다. 성도는 이 변할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시고 사랑하심으로 시작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롬 5:8; 요일 4:10, 19).
 (5) 이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중생한 연인들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연인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더욱 순결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

2. ㉡ 슬람미 여인은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했는가? (1절)

- ㉡ (1) 여인은 자신을 사론 땅에서 피어나는 수선화(잎이 없는 초원의 작은 꽃)와 골짜기에 있는 백합화(lily, 색깔이 붉은 들꽃)라고 비유했다.
 (2) 이것은 자신이 나약한 소녀임을 고백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인은 왕궁에서 가꾼 식물인 인공적인 아름다움과 다른 아름다움을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3)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고백해야 한다.

(4)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참조, 눅 18:13, 14).

3. **㉠ 여인의 고백에 대해서 왕은 어떻게 화답했는가? (2절)**

㉠ (1)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의 겸손과 순수함을 기뻐하면서 그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다고 크게 칭찬하였다.

(2) 왕은 술람미 여인을 ‘많은 여자들’과 비교하면서 그녀만이 자기의 사랑이라고 고백했다.

(3) 즉 그녀와 비교할 때 다른 처녀들은 왕의 눈에 가시나무와 같았다.

(4) 이와 같이 주의 발에는 가라지들도 있으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들도 있다. 그들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다.

(5) 그러나 택한 자는 백합화와 같다. 다만 가시나무들은 백합화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 줄 뿐이다.

(6) 주님께서는 그렇게 택한 자들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4. **㉠ 여인의 눈에는 왕이 어떻게 느껴졌는가? (3절)**

㉠ (1) 왕은 자기의 연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한 송이 백합화로 비유하였는데 여인은 자기의 연인을 수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로 비유했다.

(2) 사과나무가 그 향기로운 열매와 달콤한 냄새로 숲속의 열매맺지 못하는 나무들을 능가하는 것같이 솔로몬 왕도 여인의 눈에는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였다.

(3)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가장 귀한 분이다. 즉 발에 숨겨진 보배요(마 13:44) 가장 값비싼 진주이다(마 13:45, 46).

(4) 따라서 그를 찾고 실제적인 영적 지식에 의해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어떤 욕망의 대상도 그에 비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

(5)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나...’(빌 3:7, 8)라고 바울은 말하였다.

5. **㉠ 왕이 술람미 여인을 인도하여 들인 잔치집은 어떤 곳인가? (4절)**

㉠ (1) ‘잔치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베이트 하얌)은 포도주를 마시는 방이나 집, 잔치하는 홀(NIV, the banquet hall)을 의미한다.

(2) 왕은 시골 처녀 술람미 여인을 왕의 알현실의 걸방으로 인도하여 그녀를 환영하였다.

(3)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29)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한다.

(4) 택한 백성을 자신의 잔치집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슬픔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6. **㉠ ‘기’(旗)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4절)**

㉠ (1) 여인은 잔치집에 들어갈 때 한편 두려움이 있었지만 자기를 향한 왕의 사랑을 생각하고 용기와 위안을 얻었다.

(2)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이 자기 머리 위에서 보호하고 안위하는 깃발처럼 나부낀다고 표현했던 것이다.

(3) 구약 어디에서나 나타나지만 깃발(banner)은 군대의 상징이다(민 1:52; 2:2; 시 20:5).

(4) 모세는 ‘여호와와 나의 기’(여호와 닛시)라고 하여 자신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맡기어 주어졌음을 고백하였다(출 17:15, 16).

(5) 환난 날에 우리의 힘이 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날

에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된다.

7. **㉠ 여인은 왕 앞에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 (5절)**

- ㉠** (1) 여인은 현재 사랑의 병에 걸려 있다. 왕의 사랑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고 압도적이기에 그녀는 그러한 위력에 매료되었고 그녀의 영혼은 지쳐 있다.
 (2) 따라서 그녀는 회복을 위해 '건포도'와 다른 과일을 원했다.
 (3) 그리스도인도 그의 왕인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에 자신의 무가치함과 왕의 거룩함과 비길 데 없는 사랑으로 압도당한다.
 (4) 그리하여 그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자기 속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에 의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이다(엡 3:6).

8. **㉠ 술람미 여인은 무엇을 간증하고 있는가? (6절)**

- ㉠** (1)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안아 주는 왕의 애무로 인해 더욱 감격했던 사실을 간증했다.
 (2) 그것은 성적인 정욕에 의해 이끌렸던 경험이 아니고 단지 순수한 사랑에 의해 왕으로부터 받았던 은총의 표징이었다.
 (3) 이것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대조적인 신분을 생각할 때 더욱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느끼게 한다. 솔로몬 왕으로서는 파격적인 사랑이었고 여인에게는 은총이었을 따름이다.
 (4) 영광의 왕 그리스도는 죄로 인해 비천하기만 한 인생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는 자기의 택한 백성의 영혼을 이렇게 포용하신다.
 (5) 집에 대한 향수와 지친 여행,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열렬한 환영으로 구성된 탕자의 비유는 이 귀절에 대한 주석이라고 할 수 있다(눅 15:11-32).

9. **㉠ 6절은 혼전(婚前)의 애무에 있어 어떤 원리를 제공하는가? (6절)**

- ㉠** (1) 어떤 학자는 포용에 관한 본절의 말씀은 8:3에서와 같이 하나의 소망이나 기도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다(B. C. Caffin).
 (2) 다른 학자는 8:3과 본절을 어떤 기원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O. Zöckler, Delitzsch, M. Luther).
 (3) 만일 본절이 사실에 대한 묘사요 간증이었다면 3:11에 나와 있는 혼인 전의 성적 윤리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4) 그러나 포용의 동기가 음욕에서 말미암지 않고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6절의 포용은 간음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않는다(마 5:28).
 (5) 따라서 술람미 여인의 포용에 대한 간증은 오히려 그녀의 순결성을 강조하고 있다.

10. **㉠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7절)**

- ㉠** (1) 술람미 여인은 '노루와 들사슴'으로 서원하며 자기의 사랑의 감정과 애정을 깨우지 말도록 부탁했다.
 (2) 이 부탁은 5절의 사랑의 병과 관련되어 있다. 여인이 사랑의 병을 말한 것은 이러한 간청의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3) 여인이 노루와 들사슴으로 서원한 것은 그들의 은유함과 이상적인 사랑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이것은 무사가 칼로써, 마호멧 교도가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 것과 같다.
 (4)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사랑도 이처럼 이상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승고한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늘 소원해야 한다.

11. **㉠ 솔로몬 왕은 어디에 있는 술람미 여인을 찾아왔는가? (8, 9절)**

- ㉠** (1) 이스라엘 왕은 레바논 산지 속에 있는 술람미 여인의 초라한 집을 찾아왔다.
 (2) 거기에서 왕은 그녀를 만났고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기로 약속을 하였다.
 (3)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서 내려와 자

기의 신부인 교회를 찾으신다.

12. ㉠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첫사랑의 말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10절)
- ㉠ (1) 여인은 왕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부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요청한 말을 기억하였다.
- (2) 주님은 허물이 많고 불완전한 오늘날의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 이라고 불러 주신다.
- (3) 또한 매우 빈번한 배신과 마음의 완악함이 있는 신자들을 향해서 '나의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 주신다.
- (4) 이러한 부르심은 전체로서의 교회 뿐 아니라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선택된 각각의 영혼에게도 해당된다.
- (5) 이러한 부르심의 요청에 우리는 항상 대답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최초로 어떤 요청을 하였는가? (10절)
- ㉠ (1) 왕은 여인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청하였다(10, 13절).
- (2) 이 '일어나라'는 히브리 말은 예수께서 아이로의 죽은 딸을 부르실 때에 사용하신(달리다굴)이다(막 5:41).
- (3)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선택한 자를 한 사람씩 '일어나라'고 부르신다. '은혜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있는 자는 세리 마태와 같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따른다(마 9:9).
- (4)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을 때 우리는 일어나 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란 질문과 더불어 인도하는 대로 좇아야 한다(행 22:10).
14. ㉠ 왕이 여인을 '나의 비둘기'라고 부른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왕은 그의 사랑하는 자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비둘기'라고 하였다.
- (2) 그 이유는 9절에 나타난다. 즉 왕은 여인을 창살 틈 갈라진 사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여인이 왕에게 순결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비둘기로 비유했던 것이다.
- (3) 또한 이러한 표현은 여인의 시골 집이 산들과 바위 지대로 둘러싸여 있었음을 보여 준다(Delitzsch).
- (4)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는 비록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온갖 요소들이 산재(散在)해 있는 이 세상에서 비둘기와 같이 '진실'과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참조, 엡 4:12; 유 1:3).
- (5) 그럴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를 향해 '나의 비둘기'라는 칭찬을 하실 것이다.
15. ㉠ 왕은 어떤 의도에서 여인의 얼굴을 보고 소리를 듣기를 요청했는가? (14절)
- ㉠ (1) '얼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르에>는 이 시에서 단순한 낫(the face)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를 말한다(5:15; 창 12:11; 21:17; 39:6과 비교하라).
- (2) 또 '네 소리를 듣게 하라'고 한 것은 분명히 그녀에게 노래를 청한 것이다.
- (3) 이것은 솔로몬 왕이 여인과 인격적인 교제를 희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4) 이와 같이 우리는 연애(戀愛)를 상대방의 조건에 이끌려 육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 순수하고 온전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5) 이것은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할 참된 사랑의 관계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은 모든 사랑(부모의 애정, 친구의 우정, 이성의 연정)의 원형(原形)이다.
16. ㉠ 왕의 요청에 대하여 여인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15절)
- ㉠ (1) 15절은 술람미 여인이 10-14절에 나오는 그의 사랑하는 자의 요청에 응한 답변의 노

레이다(Herder).

- (2) 여인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고 하는 포도원 노래를 불렀다.
- (3) 그것은 왕이 회망하고 있는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자기도 회망하며 또 그 관계가 잘 보존되기 위하여 사랑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 (4) 여기서 '여우' (히, 슈알립)는 여우와 이리의 중간인 작은 재칼(jackal)을 가르키는데 키가 40cm 이상이 되지 않는다.
- (5)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와의 관계가 잘 유지되기 바란다면 그 관계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6) 곧 우리에게 하찮게 보이는 죄(나태함, 세상적인 생각, 무익한 말)가 그리스도와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17. ㉠ 여인은 회고(8-15절)한 후 이어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16절)

- ㉠ (1) 여인은 처음 왕을 만났을 때의 일을 회고한(10-15절) 후 잠시 동안 사랑하는 자와 헤어진 기간의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하고 있다.
- (2) 그녀는 잠시 헤어진 가운데서도 자기의 마음은 온전히 연인의 것으로, 또 연인의 사랑은 자기에게 집중되어져 더욱 성숙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 (3) 그녀는 여인을 목자로 표현하였으니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다. 왜냐하면 연인은 일반 목장이 아닌 '정원의 백합화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인다고 했기 때문이다.
- (4) 양 떼가 목자에게 속한 것처럼 여인은 왕에게 속하였다. 여인은 이러한 마음의 연합을 후에도 반복하고 있는데(6:3;7:10) 그만큼 기뻐했다는 뜻이다.
- (5)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심은 마음의 연합을 가리키는 것이다.
- (6) 우리는 수직적으로는 주님과 연합을 해야 하고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 연합해야 한다.

18. ㉠ 헤어져 있을 때 여인이 왕에게 부탁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17절)

- ㉠ (1)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이 날이 저물 때쯤 노루처럼, 날랜 사슴처럼 와 주기를 부탁했다.
- (2) 이것은 저녁 때까지 자기의 발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겠다는 여인의 다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여인은 15절에서 노래했던 대로 포도원을 잘 관리하여 연인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 (4) 그리고 사랑하는 자, 즉 솔로몬이 베데르('분리하다' 라는 뜻) 산 - 잠시 동안 사랑하는 자를 갈라 놓은 산 - 에서 계속 사냥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 (5)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의 의무를 동한히 해서는 안 된다. 즉 데살로니가인같이 스스로 영적 흥분에 휩싸여 자기 직업에 게을리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살후 3:11, 12).
- (6)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며(고전 10:31) 기도 시간과 마찬가지로 일상 생활에서도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일하는 것도 경건 생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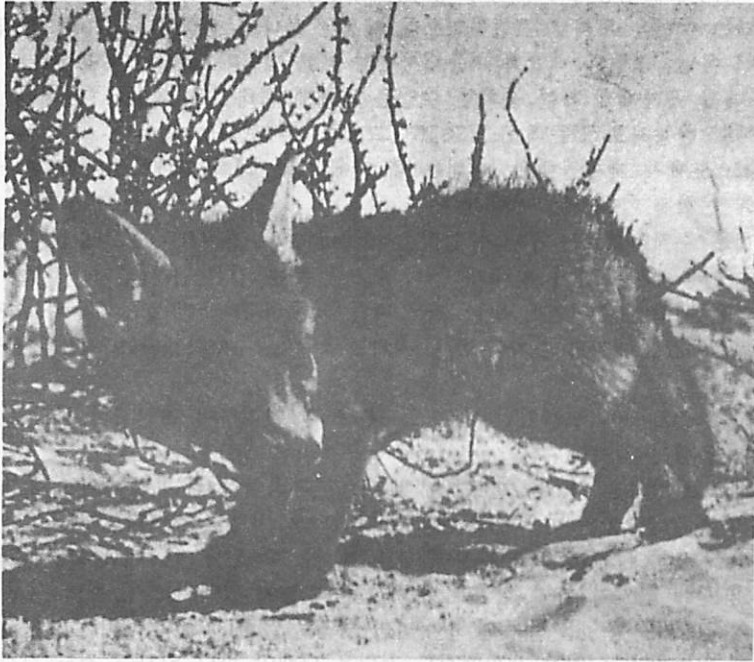
19. ㉠ 베데르 산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17절)

- ㉠ (1) 베데르(Bether) 산은 구약 성경에서 단 한 곳, 즉 본절에만 언급되는 지명으로 그 의미는 '나뉘다, 자르다' 또는 '갈라진 산'이다.
- (2) 그런데 베데르 산의 실재성(實在性)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분분하다.
- (3) 그래서 혹자는 베데르 산이 실제의 지명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 산을 식물의 이름으로 보거나 8:14절에 나오는 '향기로운 산들'과 같은 어떤 것으로 생각한다.
- (4) 그러나 대체적으로 베데르 산은 수 15:19에 등장하는 '벨 아눗'(70인역에서는 '바인데르'로 번역)과 동일한 곳으로 여겨진다.

(5) 그렇다면 베데르 산은 예루살렘 남서쪽 11km 지점에 위치한 빠티르(Bittir)의 남서쪽에 있는 길베티 엘-예후디에(Kirbet el-Yehudiyeh)라고 할 수 있다.

화보자료

작은 여우. 재빠르고 영리한 짐승인 여우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짓지 않으며 주로 밤에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이다. 여우는 곤충과 작은 동물, 과일 등을 먹고 사는데 특히 포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본장에 나타난 여우는 실제로는 재갈(jackal)인데 이 짐승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보통 '시랑'으로 번역되었다(시 63:10). 시랑은 여우와는 달리 떼를 지어 살며 야행성 동물로서 썩은 고기를 먹기도 한다.



성경에서는 포도원이 교회를(잠조, 시 80:8-16; 요 15:1), 여우는 거짓 선지자나(겔 13:2-8) 교회 내의 문제거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장에 나타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라는 표현도(15절) 교회의 일을 방해하는 여러 요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람들은 교활한 성품을 지닌 사람을 여우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도 해룻을 가리켜 '저 여우'(눅 13:32)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연구자료

아가에 나타난 자연관(自然觀)

본서에는 대부분의 성경 저자들이 지니고 있던 것과는 다른 자연관이 나타나 있다. 대개 히브리인들은 자연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업을 드러내는 창조물로 평가하였다(참조, 시 19:1-6). 그러므로 자연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으며 그분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참조, 마 6:26-30). 물론 히브리인들이 자연 환경을 묘사하면서 간혹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질서와 목적에 대하여 언급한 적도 있지만(참조, 전 1:5)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증거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본서에는 자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인간의 즐거움이 표출되어 있는데 이는 성경 저자들의 일반적인 자연관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즉 본서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기탄없는 찬양이 나와 있다(1:3; 4:13, 14; 6:10). 그리고 그러한 자연의 아름다움은 연인간의 사랑을 노래한 본서의 외면적인 주제와 어우러져 그 사랑을 보다 숭고한 것으로 승화시켰다. 따라서 본서에 나타난 자연관은 고도의 미학적 상상력을 통하여 정교하게 투사된 자연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서에 등장하는 여인은 자신의 연인을 노루와 어린 사슴(9절), 고벨화송이(1:14), 사과나무(3절) 등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남자는 술람미 여인의 신체적 아름다움을 묘사하기를 눈은 비둘기에, 머리털은 염소에, 이는 양에, 뺨은 석류에, 유방은 노루 새끼에 비유하였다(4:1-5). 이처럼 인간 신체의 아름다움이 여러 가지 자연물에 비견되어 묘사된 대목은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보기 힘들다. 뿐만 아니라 본서에는 사랑하는 연인들이 봄을 맞이하여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들판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심정이 다음과 같이 자연 찬미적 시어(詩語)로 표현되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斑鳩)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10-13절). 아물든 우리는 본서에서 자연을 있는 그대로 음미하는 자연관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서의 저자가 자연을 하나님과 무관한 것으로 이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본서의 저자는 자연을 배경으로 하여 펼쳐진 남녀간의 아름다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선민(選民), 그리스도와 교회간의 사랑을 예표하였기 때문이다.

제 3 장 사랑의 꿈이 결혼으로 실현되다

단락구분 1-4 사랑의 꿈 / 5 후렴 / 6-8 결혼식의 행렬 / 9-10 솔로몬의 연(轎, sedan chair) / 11 결혼식의 초침

1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2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중으로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3 성중의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물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4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5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6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

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7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육십 인이 용위하였는데

8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찻느니라

9 솔로몬 왕이 레바논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10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11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쁨 때에 그 모친의 씩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 이어 본장의 서두(1-5절)에는 연인을 지극히 사모하던 솔람미 여인의 연정이 그녀의 꿈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건이 묘사되어 있다.
- (2) 이렇게 성숙(成熟)하여진 사랑의 꿈은 드디어 결혼을 통해 실현되었다(6-11절).
- (3)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성도에게 꿈속에서도 사모해야 할 대상이고 또 그는 실제로 신자와 연합하여서 영원히 동거하여 주실 신랑이 되신다(계 3:20).
- (4) 또한 본장의 내용은 사랑(애정 혹은 연정)이 결혼에 전제되어야 하는 원리를 가르쳐 준다. 우리는 지상에서도 사랑을 통하여 천국의 맛을 볼 수 있으며 연애 기간의 사랑을 통하여 결혼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2. ㉡ 침상에 누워 있는 솔람미 여인의 심정은 어떠한가? (1절)

- ㉡ (1) 여인은 밤에 침상에 누웠을 때 그녀의 마음이 온통 사랑하는 자에게로 쏠려 있었음을 고백한다.
- (2)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찾았으나 발견치 못하였다는 고백을 통하여 그녀의 마음이 매우 허전했으며 그러한 가운데 잠이 들었던 것을 보여 준다.
- (3)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 대한 사모의 열정(熱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4)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잠시라도 그분을 잊을 수 없고 또한 항상 그분을 사모하게 된다.

3. ㉢ 여인은 어떤 꿈을 꾸었는가? (2절)

- ㉢ (1) 그녀는 자신의 연인을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사랑하는 자를 찾는 꿈을 꾸었다.
- (2) 그녀의 꿈속에서는 연인이 있는 예루살렘이 그녀의 고향 산과 가깝게 옮겨져 있었다.
- (3) 만일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이스라엘 처녀가 그와 같이 사람을 찾아 헤매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Delitzsch).

(4) 이러한 그녀의 꿈은 그녀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로 꽉 채워져 있었음을 보여 준다.

(5)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시 1:2)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한다.

4. **㉠** 여인이 처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지 못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2절)

㉠ (1) 여인은 1절에서와 같이 첫번째 애가를 반복하고 있다. 즉 '내가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고' 라고 말하고 있다.

(2) 우리의 영혼이 구주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단번에 그를 찾게 되는 것은 아니다.

(3) 우리는 계속해서 거듭거듭 노력할 때도 실패할 때가 많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는 일이 오랫동안 결실을 보지 못하는 일처럼 생각되기도 한다.

(4)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찾음이 신실하고, 꾸준하고, 또 간절한 것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신다.

5. **㉠**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만난 것은 언제인가? (3, 4절)

㉠ (1) 여인은 성을 순찰하는 야경꾼들을 만나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물었으나 그들은 그녀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지 못하고 떠나갔다.

(2) 그러나 그녀는 낙심치 않고 홀로 자신의 일을 계속하였다.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연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3) 그녀는 마침내 그녀의 찾는 일에 보상을 받게 되었다. '야경꾼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 것이다(4절).

(4) 하나님은 가장 슬픈 때일지라도, 즉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의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는다.

(5) 우리가 그를 간절히 찾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를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그를 찾기에 앞서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 오셨기 때문이다(눅 19:10; 요일 4:19).

6. **㉠**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자기 어미 집으로 인도한 사실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4절)

㉠ (1) 여기에 소개되는 이 작은 일화의 목적은 여인의 정열이 매우 지극하고 강렬하여 그녀의 사랑이 비합법적인 첩의 사랑이 아닌 고상한 아내의 사랑임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2) 여인이 사랑하는 자를 어미의 방으로 인도하여 들었을 때 그 어미는 기쁘게 영접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다.

(3)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자녀는 결혼의 기쁨이라는 새로운 분위기에 참여하게 된다. 여기에서 여인은 자신의 정숙함과 가정적인 순결을 선언한 것이다.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및 교제는 단순히 당사자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먼저 그들의 부모에게 합법적인 재가(裁可)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5) 왜냐하면 그들의 부모로부터 허가를 받는 것은 그들의 교제 및 결혼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7. **㉠** 5절의 후렴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 (1) 아가서 전체에 걸쳐 세 번 나오는 이 후렴구는(5절; 2:7; 8:4) 본장에서 두번째로 등장하면서 1:2에서 계속되어진 이야기를 끝맺게 한다.

(2) 이 말은 왕과의 사랑이 여인에게는 깨고 싶지 않은 좋은 꿈과 같음을 뜻한다.

(3) 그 꿈의 주제는 사랑, 즉 순수하고 흠이 없는 사랑과 그 사랑의 슬픔과 기쁨, 이별과 복된 재결합이다. 그것은 신성한 사랑이었다.

(4) 여인은 그러한 꿈속에서 기다릴 줄 알았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원할 때에는 꿈에서 깨어나 현실의 행복에 들어가게 되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그녀는 사랑하는 자의 의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것이다.

(5)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사랑의 노래의 후렴이 되어야 한다. 성도가 가진 믿음의 비밀은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가 주님이 '원하실 때에야 비로소' 보여지게 되고 완성된 행복으로 나타날 것이다.

8. **㉠** 6절의 질문은 누가 한 말인가?

- ㉠** (1) 이 말을 한 사람은 '시온의 여자들' (11절)의 무리에 속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 여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9. **㉠** 6절의 질문은 어떤 장면을 바라보면서 한 것인가?

- ㉠** (1) 이것은 신부의 행렬을 보고 질문한 것이다. '오는 자가 누구이고' 라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 <올라>는 여성 능동태 분사로 '오는 이 여자가 누구인가' 란 뜻이다.
 (2) 이 갈릴리 출신의 한 처녀가 요단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다. 그것은 왕궁으로 가는 행렬로 장엄하고 훌륭한 광경이다.
 (3) 즉 유향 단지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향기가 주변에 가득하였으며 향을 태움으로써 생긴 연기 줄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이것이 앞뒤에서 행렬을 표시하였다.
 (4) 이러한 것은 광야를 횡단하는 아라비아 상인의 행렬을 연상케 한다. 광야는 속박과 수치와 죄와 비극의 상징과 같은 이 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신부는 그곳을 지나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계속 전진한 것이다.
 (5) 이와 같이 천국을 목적삼고 사는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날 때 마땅히 그리스도의 의와 향기를 나타내야 한다.

10. **㉠** '솔로몬의 연(轎)'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7절)

- ㉠** (1) '솔로몬의 연'은 7절과 9절의 그것이 히브리 성경에서 각각 다른 단어로 쓰였다.
 (2) 7절의 '연'은 히브리어 <미타>인데 '침대'를 의미한다. 이것은 인도의 일인승 가마의 방식을 따른 이동용 침대(the traveling couch)이거나 앉는 의자로서 사방에 휘장이 달려 있는 것을 말한다.
 (3) 9절의 '연'은 다른 단어로써 히브리어 <아피르온>이 쓰였다. 이 단어는 좀더 위엄 있는 '왕의 가마'(a sedan chair)를 뜻한다.
 (4) 학자들은 <아피르온>과 <미타>가 동일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한다(O. Zöckler).
 (5) 그것은 여행하는 가마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고대 히브리 관습에 따르면 신랑과 신부는 나란히 마차를 타고 갔다고 한다.

11. **㉠** 솔로몬의 가마를 어떤 사람들이 호위하였는가? (7, 8절)

- ㉠** (1)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호위하였다(7절). 이 수효는 왕의 전체 호위병 중 10분의 1에 해당한다(삼상 27:2; 30:2).
 (2) 이 호위병들은 다 싸움에 익숙한 용사들로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이로써 수병에서 예루살렘까지의 80km가량 되는 여행에서 밤의 위험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했다.
 (3) 하나님의 교회도 종종 위험과 적이 있는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서는 교회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지켜 주신다.
 (4)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에 신자들은 곤경 가운데서도 분명한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다(참조, 수 1:9; 시 23:4).

12. **㉠** 솔로몬의 가마는 어떻게 장식되었는가? (9, 10절)

- ㉠** (1) 그것은 신부의 고향인 레바논에서 가지고 온 향기나고 썩지 않는 백향목으로 만들어진 가마였다(9절).
 (2) 그것의 장식품들도 매우 값진 것, 즉 금과 은과 두로의 값진 자주빛 베로 만들어졌다. 또 가마의 안은 예루살렘 여인들로부터 받은 사랑의 선물인 방석이 깔려 있었다(10절).
 (3) 이러한 가마의 장식들은 신부를 향한 솔로몬 왕의 깊은 애정과 관심을 대변해 준다.

(4) 어린양의 아내인 교회는(계21:9) 하나님의 영광 중에 새 땅과 새 하늘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13. **㉠** 솔로몬 왕이 결혼식에 썼던 면류관에 대해 설명하라(11절).

- ㉠** (1) 본문에 나오는 면류관은 솔로몬 통치의 일반적인 상징이거나 왕으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 (2)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다 함께 면류관을 쓰는 관습이 있었다.
- (3) 솔로몬이 쓴 면류관은 특별히 그의 어머니(밧세바)가 씌워 준 것으로 자기 아들의 결혼을 인정하는 표시이다.
- (4) 한편 솔로몬 왕이 썼던 면류관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쓰신 무한한 주권의 면류관을 상징한다.
- (5) 성도들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사수한 순결한 신부인 성도들에게 씌지 않는 면류관(고전 9:25), 의로운 면류관(딤후 4:8), 영광의 면류관(벧전 5:4)을 씌어 주실 것이다.

화보자료

신랑과 신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정겨운 광경을 묘사한 아래 그림은 움브리아의 수도사들이 그린 12세기 성경 사본의 삽화로서 지금은 바티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신부가 신랑을 찾아 다닌 후에 기어이 신랑을 찾아 그를 꼭 붙잡고 놓지 않는 모습은(1.4절) 하나님을 찾아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야 할 성도의 바른 자세를 가르쳐 준다(참조, 약 4:8).

제 4 장 신랑과 신부의 대화

단락구분 1-5 신랑이 신부의 용모를 극찬하다 / 6 신부의 대답 / 7-8 신랑의 권고 / 9-11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다 / 12-15 신랑이 신부의 풍성함에 감탄하다 / 16 신부의 기원(祈願)

1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같구나

2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털 깎인 암양 곧 새끼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3 네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4 네 목의 굳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5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새끼 같구나

6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몰약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7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워서 아무 흠이 없구나

8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 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 산에서 내려다 보아라

9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10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11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12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13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초와

14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계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15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16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먹기를 원하노라

1. ㉠ 본장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가?

- ㉠ (1) 연회 장소에서 신랑이 될 왕을 만난 술람미 여인은 결혼식 이전까지 있었던 구애의 이야기를 고백하였다(2:8-3:5).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혼인 날을 맞이했다(3:6-11).
- (2) 전장까지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본장에서 신랑과 신부로서 등장한다. 본장에는 단지 두 사람만이 등장하며 그들의 부부간으로서 나누는 사랑의 대화가 무르익어 간다.
- (3) 신랑은 신부의 몸이 지니고 있는 순결미를 극찬하고(1-5절) 그에 대한 반응으로 신부는 겸손히 자신의 부족을 고백했다(6절).
- (4) 그때 신랑은 신부를 더욱 사랑스럽게 보면서 감탄하였고(7-15절) 이어서 신부는 신랑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다시 한번 노래하였다(16절).
- (5) 이처럼 본장에는 신랑의 극찬한 사랑과 신부의 겸손과 순종이 돋보인다.
- (6) 이러한 사랑과 순종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 부부(夫婦) 사이에 실천되어야 할 윤리이기도 하다(엡 5:22-33).

2. ㉠ 본장의 시간적 배경은 언제인가?

- ㉠ (1) 본장은 결혼식 직후에 왕궁 연회석에서 되어진 이야기이다. 즉 신랑과 신부가 잔치석에 있는 많은 손님들과 떨어져서 밀담(密談)을 나누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 (2) 어떤 학자는 8절까지는 결혼식장으로 가는 가마 안에서 주고받은 대화이고 9절 이후는

결혼식 후에 되어진 이야기로 본다(Caffin).

- (3) 그러나 다른 학자는 그것이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고 4장 전체가 결혼식 후에 결혼한 사이로써 대화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한다(Zöckler).
- (4) 이야기의 흐름으로 미루어 볼 때 후자의 견해가 더욱 타당하다.

3. **㉠ 신랑이 신부의 용모를 칭찬한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1-5절)**

- ㉠ (1)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있다. 즉 그는 신부의 몸의 각 지체(눈, 머리털, 이[齒], 입술, 입, 뺨, 목, 유방)를 말하고 있다.
- (2) 신랑은 신부의 몸의 아름다움을 자연(自然)과 비교하면서 칭찬한다. 이것은 신부의 소박함, 순수함, 진실함에 대한 칭찬을 의미한다.
- (3)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칭찬하실 때 각 지체별로 칭찬하신다(참조, 고전 12:18). 지체가 교회의 질서에 따라 바른 위치에 있을 때 주님께 아름다움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교회의 순수미(純粹美)요 자연미이다.
- (4)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엡 1:23). 그러므로 그 몸의 각 지체는 모두 주님에게 사랑스럽게 보이고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5) 부부간의 애정은 단지 본능적 성욕에 이끌려서는 안 되고 본장에서 노래되어지듯 상대방의 인격과 아름다움에 대한 존경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4. **㉠ 신랑은 신부의 몸의 각 부분을 어떻게 비유하였는가? (1-5절)**

- ㉠ (1) 본문에 8가지 부분이 열거되고 있는데 각 부분에서 신부의 자연미가 묘사되고 있다.
- (2) 도표를 참조하라.

	몸	비유
1	너울 속에 있는 눈	비둘기
2	머리털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무리 염소
3	이(치아)	목욕장에서 나온 털깎인 양양 -쌍태를 낳은 양
4	입술	홍색실
5	입	어여쁘고
6	너울 속의 네 뺨	석류 한 쪽
7	목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1,000방패,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8	두 유방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 쌍태 노루 새끼

5. **㉠ 유방에 대한 비유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5절)**

- ㉠ (1) 그 비유는 아름답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섬세한 비유로 신부의 가슴의 균형잡힌 모습과 완벽한 자태 그리고 매력적인 신선함을 설명해 준다.
- (2) 백합화에 뒤덮힌 초원은 아름다움과 향기를 암시한다. 백합화로 단장된 침상에 누운 쌍태의 어린 양양은 달콤한 향기가 나는 옷에 감싸인 순결한 처녀의 가슴의 섬세함과 우아함을 나타낸다(참조, 1:13).
- (3) 여기서 ‘백합화’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징하고(15:13), ‘노루 새끼’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를 상징한다(합 3:19).
- (4) 즉 이 비유는 두 개의 유방이 갖는 균형과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다. 교회는 항상 균형잡힌 질서 가운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 **㉠** 신부가 몰약의 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고 한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신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녀의 수줍음과 겸손함 속에서 사랑하는 자의 칭찬을 자제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즉 그러한 칭찬들이 자기에게 너무 과하다는 뜻이다.
- (2) 이 말을 통해 신부는 밤의 그들로 자기의 수줍음이 감추어질 때까지 자기로 하여금 왕궁의 사랑스러운 동산(몰약 산, 유향의 작은 산)을 홀로 걷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참조, 2:17).
- (3) 그러나 순간적인 증단이 지난 뒤 신랑은 더욱더 사랑스러운 말로 신부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예찬한다.
- (4) 이와 같이 신자는 주님 앞에서 겸손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입구에 놓여 있는 것으로 산상 수훈에서 맨 처음 언급된 것이다(마5:3; 고후11:18).
7. **㉠** 7-15절에 나타난 신랑의 말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이 부분에서 솔로몬 왕은 솔람미 여인을 최초의 '신부'라고 부른다(8-12절).
- (2) 신랑은 여인의 무흠(無欠)한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자기의 신부가 된 것을 공언(公言)하였다.
- (3) 이제 신랑은 앞에서(1-5절)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칭찬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7-15절) 신부의 내적인 풍성함을 칭찬하고 있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외형적인 면 뿐 아니라 내면적인 면에서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5) 이러한 무흠한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이다(엡1:4-16).
8. **㉠** 신랑의 두번째 예찬은 어떤 말로 시작되었는가? (7절)
- ㉠** (1) 신랑은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뵈서 아무 흠이 없구나'라는 말로 신부의 온전한 아름다움을 칭찬했다.
- (2) 신부의 아름다운 겸손과 수줍음(6절)이 신랑의 사랑을 새롭게 불붙인 것이다.
- (3) 신랑이 신부의 몸의 아름다운 자태를 칭찬하였을 때 신부는 그러한 칭찬에 대한 겸손한 응답으로 자기 마음의 지극한 아름다움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신랑은 이것을 온전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움이라 칭찬했다.
- (4) 이처럼 교회는 어린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한다(엡5:27).
9. **㉠** 왕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신부'라고 말한 사실이 주는 의미를 말하라(8절).
- ㉠** (1) 왕은 8절에서 최초로 여인을 '나의 신부야'라고 부른다.
- (2) 이러한 표현은 그녀의 인격에 대한 칭찬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여인은 이제 인격적인 동화와 결합에 의해서 왕에게 영원히 속하게 된 것이다.
- (3) 왕은 시45편의 '네 백성과 네 아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시45:10)라는 말처럼 그녀를 위하여 예비한 새 생활에 그녀가 완전히 젖어 들도록 초대하는 것이다.
- (4) 우리가 그리스도와 이러한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 배설물로 여기는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빌3:8).
10. **㉠** 8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이 말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기쁨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나에게 골몰하라', 즉 '너는 내게 속하였다'를 의미하는 것 같다.
- (2) '아마나'의 꼭대기는 왕하5:12에 언급된 아마나 강 옆에 있는 산으로 레바논 산의 정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스넵과 헤르몬(시89:12)은 인근 봉우리어거나 같은 장소에 대한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참조, 신3:9).

- (3) 신랑의 권고는 이러한 산에 실제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지극한 아름다움 앞에 펼쳐지는 원대(遠大)한 삶의 전망을 바라보자는 것이다.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은 오직 신랑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 사자굴과 표범 산갈이 온통 위협한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11. ㉠ 신랑은 무엇에 의해서 신부에게 자기 마음을 빼앗겼다고 고백했는가? (9절)

- ㉠ (1) 신부가 눈으로 한 번 바라본 것과 그녀의 목을 두른 목걸이 구슬이 신랑의 마음을 빼앗았다고 하였다.
- (2) 눈으로 한 번 훑어보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처럼 그녀의 시선은 신랑으로 하여금 그녀의 순결한 마음을 느끼게 했던 것이다.
- (3) 또한 신부의 작은 목걸이는 비록 장식품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다. 어떤 사람의 깊은 매력은 그가 입고 있는 옷으로 전달될 수 있다.
- (4) 혈투중 앓는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 만지는 것을 원하였다(마 9:20).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그가 입은 옷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발산된다.
- (5) 이렇게 교회는 평범한 행위나 부분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진실해야 하는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빼앗고 그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12. ㉠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9, 10, 12절)

- ㉠ (1) 신랑이 신부에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부른 것은 '나의 누이 같은 신부'라는 뜻으로 약혼녀 이상의 관계를 가리킨다.
- (2) 이러한 이중적 명칭은 특수한 친밀감을 지시함도 아니요 또는 순결하고 깨끗한 사랑의 관계를 지시하는 것도 아니다.
- (3)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확실한 관계의 명칭이다. 결혼 후 솔람미 여인은 이제 솔로몬의 법적 아내로서 서로 오누이같이 솔로몬 곁에 항상 있게 되었다.
- (4) 솔람미 여인은 수많은 아내 중의 하나(6:8)가 아니고 그의 왕적 지위와 이름을 누이로서 나누는 자가 된 것이다.
- (5) 이와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영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 (6)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자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받을 자로 귀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벧전 3:7).

13. ㉠ 신랑이 신부를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고 비유한 의미는 무엇인가? (12절)

- ㉠ (1) '잠근 동산'이라고 한 것은 그 동산이 타인이 아닌 그 소유주에만 공개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덮은 우물, 봉한 샘'도 같은 의미이다.
- (2) 16절에서는 솔람미 여인이 자신의 숨은 아름다움을 자신의 동산이라 하였고 또한 솔로몬의 동산이라고 하였다.
- (3) 잠 5:15-18은 샘의 상징을 한 아내와 그 남편에게 적용한다. 그 아내는 누구에게도 공개할 수 없는 샘으로 표현된다. 그 남편은 이 샘의 물을 먹고 기뻐하며 소생함을 얻는다.
- (4) 이러한 사실은 전적으로 신부의 순결성을 가리킨다. 이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순결해야 한다.

14. ㉠ 신랑이 신부에게 '네게서 나는 것'이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인가? (13, 14절)

- ㉠ (1) '네게서 나는 것'이란 '신부의 인격의 모든 상황과 생활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뜻한다.
- (2) 그것은 과목(果木)들과 아홉 가지 식물, 모든 향품으로 열거되고 있다(13, 14절).
- (3)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그 식물들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를 황홀케 하는 신부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신부의 순결한 인격과 삶은 이렇게 풍성한 기쁨과 아름다움을

창조한다.

(4) 삶은 인격의 나타남이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마 12:35)을 낸다.

15. ㉠ 솔로몬이 솔람미 여인에게서 나오리라고 했던 식물의 명칭을 도표로 설명하라 (13, 14절)

㉠

식물명	특성
석류나무	3.5m까지 자라는 낙엽수. 그 꽃은 매우 아름다워서 봄을 상징. 학개는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의 표시로 포도, 무화과, 올리브와 함께 석류를 언급(학2:9).
고델화	팔레스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으로 장미 냄새가 나며 연분홍색 꽃이 핀다. 그 잎은 화장품으로 사용.
나도초 (나도)	나드(nard)로 통칭(막 14:3; 요 12:3). 인도산으로 3-50cm까지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그 뿌리와 털은 값비싼 향유인 나드 향의 재료로 사용.
번홍화	사프란(Saffron)으로 통칭. 값비싼 수입 향료이며 음식과 음료수를 물들이기 위한 채소 염료로 사용.
창포	향기가 나는 갈대나 풀을 가리키며 생강 기름, 레몬 기름, 향수로 사용되는 시트로넬라 기름을 낸다.
계수	인도에서 들여온 것으로 육계와 같은 나무이다.
유향목	유향의 원료가 되는 유향수, 즉 카르테리, 파피리페라, 두리페라를 뜻한다.
몰약	아라비아산 나무인 발사모덴드론 미드라에서 스며 나오는 방향성 수지.
침향	서아시아 토산의 아열대 나무로 향, 약제의 원료로 사용.

16. ㉠ 신랑이 신부를 '동산의 샘, 생수의 우물, 레비는 시내'라고 부른 것은 무슨 의미인가? (15절)

- ㉠ (1) 이러한 신랑의 신부에 대한 표현은 신부의 인격의 신선함과 고귀함을 결론지어 준다.
 (2) 이 표현들은 앞의 잘 정돈된 정원의 풍성함과 향기를 (13, 14절) 신선한 산의 시냇물과 혼합하여 신부의 인격적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이다.
 (3)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는 모두가 샘이요 우물이요 시내가 될 수 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시원케 해줄 수 있고 누구보다도 주님을 만족케 해드린다.
 (4) 이것은 곧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이며(참조, 사 55:1; 요 4:14)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17. ㉠ 신랑의 모든 찬사에 대하여 신부의 대답은 어떠했는가? (16절)

- ㉠ (1) 신부는 신랑의 모든 비유를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녀는 신랑의 찬사에 손색이 없도록 자신도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 신부는 신랑이 비유한 대로(12절) 자기가 동산인 것을 시인한다. 그러나 아직 부족함을 고백하며 더욱 성숙하여 신랑의 마음에 만족을 주게 되기를 기원한다.
 (3) 우리 성도들은 과실을 맺는 포도나무 가지와 같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요 15:8).
 (4)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고(요 15:5)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한다(요 15:7).

18. ㉠ 신부는 동산의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였는가? (16절)

- ㉠ (1) 그녀는 '나의 동산'이라고 말한 뒤 이어서 '그의 동산' (His garden)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의 사랑하는 자, 곧 신랑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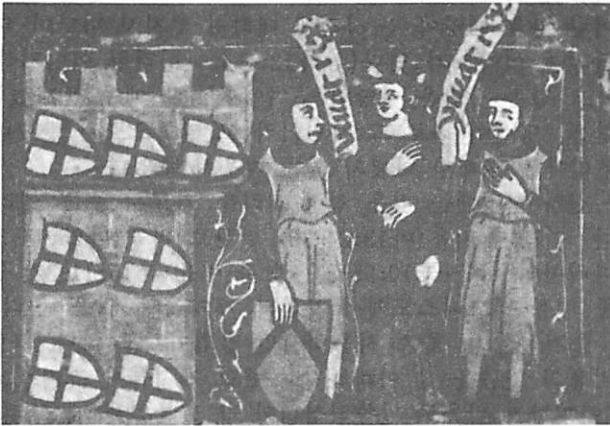
- (2) 동산은 그녀의 것이다. 왜냐하면 동산은 그녀 자신이며 그녀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 (3) 그렇지만 그것은 신랑에게도 속한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 곧 그녀의 사랑을 그에게 바쳤기 때문이다.
- (4) 오늘날 성도들은 신부와 같이 주님께 고백해야 한다(롬 14:8). 그리고 부부간의 윤리도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전 7:4).

19. ㉠ ‘북풍’과 ‘남풍’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16절)

- ㉠ (1) 신부는 계절적인 변화를 통해 그녀의 아름다움이 개발되고 드러나며 연단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다.
- (2) 북풍은 찬바람이고 남풍은 뜨거운 바람이다. 찬바람과 더운 바람, 시원한 바람과 미지근한 바람이 적당한 때에 교체하면 동산 과목의 성장을 촉진하고 향기를 날리게 된다.
- (3) 여기서는 동풍을, 즉 폭풍을 몰아오기도 하는 바람을 말하지 않았다(창 41:6; 사 27:8). 또 비바람을 몰아오는 서풍을 말하지도 않았음에 주목해야 한다(왕상 17:44; 눅 12:54).
- (4)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의 미풍 뿐 아니라 재난의 차디찬 북풍도 용납해야 함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기쁨과 슬픔 모두를 허락하셔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알아야 하겠다(롬 8:28).

화보자료

방패가 달린 망대. 성벽과 망대에 방패가 걸려 있는 아래 그림은 13세기의 성경 사본 「인간 구원의 거울」에 나오는 다윗의 망대로서 이 사본은 현재 로마의 코르시니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용사들이 자신이 지키는 성의 망대와 성벽에 방패를 걸어 놓는 것은 (4절) 성벽을 장식함과 아울러 전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참조, 겔 27:11).

연구자료

성경의 문학적 장르(genre)

성경의 문학적 위대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성경 기자들이 똑같은 문학적 재능을 지녔던 것은 아니며 또한 성경의 모든 부분이 똑같은 문학적 가치를 지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 기자들의 다양한 재능들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시며 각종 아름다운 문학 장르들을 사용하시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산출해 내셨다. 이러한 성경에 나오는 장르들로 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충 꼽아 보아도 산문과 운문, 역사, 드라마, 비유, 상징, 격언과 시가(詩歌), 묵시, 서간(書簡) 등이 있다. 성경에는 이상과 같은 장르 뿐 아니라 그 외의 장르들(예를 들면 레위기 신명기와 같은 법전, 욥기와 같은 변론)도 아주 뚜렷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장르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그 장르로 기록된 성경의 여러 책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상 상징적인 뜻을 지니고 있는 글을 읽고 그 상징의 뜻을 해석해 내는 것은 일반적인 평서문(平書文)을 읽고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바로 여기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성경에 나타난 각종 장르들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각도에서 성경에 사용된 몇몇 장르들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하여 사용된 예화가 있다. 이러한 예화 가운데 하나로 어느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가장 소중한 한 마리 어린 양을 빼앗아 간 사건에 대하여 선지자 나단이 다윗 왕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있다(삼하12:1-4).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그 같은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매우 분개했는데 이때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다윗의 죄를 깨우쳐 주었다.

또한 신약 성경에는 깊은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는 여러 비유가 있다. 가라지 비유(마13:24-30), 달란트 비유(마25:14-30),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10:25-37), 탕자 비유(눅15:11-32) 등과 같은 각종 비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진리를 증거하실 때 즐겨 사용하시던 방법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와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답하셨던 말씀은 참으로 의미 심장하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회에게는 아니 되었다'(마13:11).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비유가 지니고 있는 특별한 의미이다. 즉 '천국의 비밀'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발견하거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

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 하신다(참조, 딤후2:4).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거부하고 스스로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써 이러한 천국 비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참조, 마13:14, 15; 행7:15-53).

또 한 가지 특별하게 언급할 장르는 계약서라고도 할 수 있고 법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신명기에 나타나는 법문(法文)이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를 위한 일종의 헌법이다. 이 헌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종주권 언약(宗主權言約)이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종속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의무 조항(신4-26장)과 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른 처벌과 축복 조항(신28장)이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전은 상징성이 배제된 사실 간명한 문장과 직설적인 문체로 기록되어야 함이 일반 상식이다. 그러기에 시가서나 예언서 그리고 복음서나 서신들과는 달리 신명기는 법문(또는 법규)으로서의 간결한 문체로 기록된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장르는 드라마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본서인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희곡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만 각색(脚色)을 하면 훌륭한 극이 창출될 수 있는 극적 요소를 많이 지녔다. 본서의 주인공인 두 남녀의 사랑의 노래는 독자들을 꽃이 피고 새가 우는 푸른 풀밭으로 끌어들인다(2:10-14). 그리고 연인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대목은 독자들의 가슴을 터질 듯하게 만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1-5절; 5:10-16). 그러나 이러한 사실적인 의미, 즉 남녀간의 사랑의 아름다움과 그에 따르는 낭만적인 감흥을 주는 것만으로 본서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서는 독자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선민(選民)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또한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은유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신·구약 성경 전권은 사실 하나의 주제하에 엮어진 한 편의 장엄한 드라마라고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인간의 타락-하나님의 구원 사역 및 메시아 예언-오신 메시아-다시 오실 메시아와 신천 신지의 순서로 전개되는 한 편의 드라마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사랑의 노래도 들어 있으며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는 묵시도 들어 있다. 아뭏든 각양 각색의 극적 요소와 여러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는 성경은 독자들에게 한 편 한 편이 색다른 감흥을 안겨 주면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잃지 않는 위대한 드라마로 오늘날 이 세상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제 5 장 결혼 초기에 시련이 임하다

단락구분 1 결혼 잔치에 친구들을 초청하다 / 2-7 두번째 꿈을 통하여 보여진 시련 / 8 사랑의 병 / 9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 / 10-16 사랑하는 남편을 소개하다

1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 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이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2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이라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졌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4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동하여서

5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지방에 들는구나

6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7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

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8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9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10 나의 사랑하는 자는 회고도 붉어 만 사랑에 뛰어난다

11 머리는 정금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12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담담게도 박혔구나

13 짧은 향기로운 꽃발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똑똑 떨어진다

14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15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16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1. ㉠ 본장에서 묘사된 결혼 생활이 제공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 (1) 전장에서 결혼한 신랑, 신부는 대화를 통해 완전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2) 본장에서는 결혼 잔치를 마치고 신혼 생활에 들어간 얼마 후에 시련을 당하는 두 사람의 사랑이 나타난다.

(3) 그런데 본장에서 신부의 마음은 3:1-5까지의 꿈과 비슷한 꿈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2-7절). 하지만 두 꿈은 매우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는데, 즉 첫번째 꿈은 밝고 즐거움에 끝났으나 이번의 꿈은 고통과 놀라움으로 끝난다.

(4) 이것은 신부의 마음이 잠시 나태와 안일에 빠져 신랑에게 무관심했던 것을 암시한다.

(5) 그러나 신부는 이런 시련을 통하여 다시 신랑의 훌륭함을 확인하고 자기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었다(8-16절).

(6) 이처럼 그리스도의 뛰어난성에 대해 성도들은 신앙 초기에 비해 무관심으로 잊고 지낼 수가 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령은 '너희 처음 행위(사랑)를 가지라' (계 2:4,5) 고 말씀하신다.

2. **㉠** 1절의 신랑의 말은 어떤 배경에서 주어진 말인가?

- ㉠** (1) 흑자는 4:16과 5:1 상반절에 신부의 밤에 관한 기사가 삽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어쨌든 1절 상반부에 사용된 말들은 솔로몬이 자신의 부인이 된 여인에게 하는 아침 인사이고 그리고 1절 하반부는 손님들을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말로 볼 수 있다.
 (3) 고대 관습에 의하면 혼인 예식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혼인 잔치가 시작되어 7일간 계속되었다(창 29:28; 삿 14:12).

3. **㉠** 신랑의 혼인 잔치에 초청하는 말이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신랑이 신부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4:16)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자기 친구들을 초청하고 있다.
 (2) 신랑은 분명히 그의 친구들인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불리웠다(참조, 3:6-11).
 (3) 이와 같이 천국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예물을 받아들인다. 그는 이미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바치셨다. 그렇기에 교회의 예물은 그의 기쁨이다.
 (4) 그리스도는 거룩한 비유를 통해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고 하셨다(참조, 눅 15:7).
 (5)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사랑하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
 (6)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진실로 '잠근 동산'(4:12)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속된 것에서 구별하도록 애써야 할 것이다.

4. **㉠** 두번째 꿈의 내용은 무엇인가? (2-7절)

- ㉠** (1) 이 두번째 꿈은 결혼 잔치를 치루고 난 몇 주간 후에 꿈 것으로 보인다.
 (2) 그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아내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그녀를 부른다. 아내는 머뭇거리다가 문을 열었으나 남편은 이미 돌아갔다. 그리고 아내는 뒤늦게 남편을 찾아 거리로 나갔으나 해(害)를 받고 말았다.
 (3) 이러한 내용은 첫번째 꿈(3:1-5)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편으로 매우 대조적이기도 하다.

5. **㉠** 두번째 꿈(5:2-7)과 첫번째 꿈(3:1-5)을 비교할 때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 ㉠** (1) 먼저 시간적인 면에서 볼 때 첫번째 꿈은 연애기에 이루어진 데 반해 두번째 꿈은 결혼 후에 이루어졌다.
 (2) 또 첫번째 꿈에서는 여인이 먼저 연인(왕)을 찾아 나서서 그를 만났지만 두번째 꿈에서는 그녀가 먼저 찾아온 남편을 돌려보내고 그 후 다시 찾지만 결국 만나지 못했다.
 (3) 내용면에 있어서도 두번째 꿈이 첫번째 꿈보다 더욱 생생하고 세밀하게 결혼 생활의 입장을 확실히 묘사하였다.
 (4) 이것은 자신의 실책과 부족을 고백함과 동시에 아내로서 사랑하는 자의 매력과 그의 소중함을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좀더 분명히 소개한 것으로 생각된다.

6. **㉠**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고 함은 무슨 뜻인가? (2절)

- ㉠** (1) 이것은 신부가 잠을 자고 있으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뜻으로서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2) 여기서 '마음'(히, 레브)이란 지식과 감정을 내포한 속사람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마음'은 생명의 중심이고 또 중심적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3) 만약 잠이 자의식(自意識)을 저하시키는 것이라면 꿈은 자의식을 승화시키는 것이 된다.

7. **㉠** 신랑은 신부를 어떻게 불렀는가? (2절)

- ㉠** (1) 신랑은 신부를 네 가지 호칭으로, 즉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

야'라고 불렀다.

- (2) '나의 누이'라 함은 신부가 신랑(솔로몬 왕)과 같은 지위에 있음을 알려 주는 말이다.
- (3) '나의 사랑'이라 함은 신부가 신랑에 의해 선택된 짝이요 한 몸인 것을 가리킨다.
- (4) '나의 비둘기'라는 호칭은 신랑이 결혼 전부터 사용한 호칭으로(2:14) 순결함과 검소함과 사랑스러움을 의미한다.
- (5) '나의 완전한 자'라고 한 것은 아주 새로운 명칭으로 결혼 후에 최초로 채택된 이름이다. 히브리어(타만티)는 종과 같이 '어떤 사람에게 헌신된 자'를 말한다.
- (6)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어떤 사람도 그만큼 순결하고 완전할 수 없는 순결함과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엡 1:4).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8. **㉠**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린 것은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가? (2절)

- ㉠** (1) 사랑하는 자는 지금 산을 넘어 긴 여행을 마치고 밤에 돌아왔다. 그래서 그는 밤 이슬에 젖어서 추위를 느꼈다.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기에 그녀의 방문을 노크한 것이다.
- (2) 또 이것은 그 사랑하는 자가 하나의 목자로 상징되어 그가 들에서 양과 함께 야영하면서(참조, 눅 2:8) 추위에 시달리다가 아내의 거처로 찾아온 것이라고 보여진다.
- (3)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수고를 겪으신 후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고자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신다(계 3:20).
- (4)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민감해야 한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사랑과 순결과 완전함'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 하신다.

9. **㉠** 신부가 옷을 다시 입고 발을 더럽히지 않으려 했던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절)

- ㉠** (1) 그 뜻은 '내가 피곤하여 쉬려 하니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이다.
- (2) 여기에 신랑을 사랑하던 신부가 갖고 있는 게으름, 주저함, 안일함 등이 엿보인다. 물론 이 장면은 상상 속에서의 사실이지 실제 사건을 묘사한 것은 아니다.
- (3) 그러나 비록 꿈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솔람미 여인이 남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녀의 실제적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 (4) 이 점에 있어서 여인은 그녀의 첫사랑을 상실한 것이다. 성도에게도 첫사랑인 주님을 상실할 때가 있다(계 2:4).
- (5) 우리는 이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체험한 십자가의 사랑을 언제든지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었을 때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4절)

- ㉠** (1)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와 노크 소리를 들으면서도 일어나기를 주저하였던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손이 문틈으로 나타나자 '마음이 동(動)'하였다.
- (2) 문틈은 자물쇠의 윗 부분에 뚫린 문의 한 부분인데 밖에서 문을 열 때는 그곳에 손을 넣어 문빗장을 밀어 문을 열게 되어 있었다.
- (3) 신랑은 신부가 일어나지 않자 그렇게 열어보려고 손을 내어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열지 못했다. 이것은 아내에 대한 간청의 표시임과 동시에 신부에 대한 진실된 애정이 담긴 신랑의 간절한 열망(熱望)이기도 했다.
- (4) 여기서 '마음이 동하여서'라는 귀절을 직역하면 '내 창자가 그에 대하여 끓었다'(애2:11)인데 이는 동정심보다는 유감을 표시하는 말이 된다.
- (5) 주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문을 두드리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오시려고 애쓰신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도리어 저지당하시고 냉정하게 배척당하곤 하셨다(참조, 마 13:57, 58; 계 13:20).
- (6) 그러나 못자국이 난 그의 손을 볼 때에 우리는 그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달아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될 것이다.

11. ㉠ 문을 열 때 물어 나오는 몰약의 좁은 누구의 것인가? (5절)

- ㉠ (1) 그것은 사랑하는 자가 입실을 거부하는 아내에게 자기가 왔다갔다하는 표시로 부어 놓았던 것이었다. 몰약은 값비싼 향품으로 사랑하는 자가 솔로몬 왕인 것을 암시한다.
- (2) 신부가 여기에서 반복하여 언급하며 찬양한 것은 그녀의 사랑하는 자의 향기이지 결코 그녀 자신의 향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 (3)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격적인 향내를 묻혀 놓고 가셨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찾고 계신 것을 확인하게 된다.
- (4) 회개를 통해 늦더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자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증거를 발견하고 그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12. ㉠ 문을 열었을 때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6절)

- ㉠ (1) 신부는 첫사랑을 기억하여 문을 열었으나 사랑하는 자는 이미 물러가서 보이지 않았다. 밖으로 나가 그를 찾아도 만날 수 없었고 그를 소리쳐 불러도 응답이 없었다.
- (2) 신부는 다시금 그녀의 실수를 고백하며 회개한다. '그가 말할 때에 내가 정신을 잃고 있었구나.' 이처럼 그녀의 영혼은 잠시 나가 버렸으며 또한 그것은 그녀로 실패하게 했다.
- (3) 이러한 신부의 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비유이다. 영혼은 때때로 무심하고 냉담한 상태에 빠져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좌절과 낙심을 당할 때가 있다.
- (4) 그때 우리는 비록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몰약의 좁이 상징하는)를 발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잠시 동안 그를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찾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13. ㉠ 신부가 행순(行巡) 하는 자들에게 해를 입은 것은 무엇을 암시하는가? (7절)

- ㉠ (1) 행순하는 자들은 사실 그녀를 보호하고 도와 주어야 했다. 그러나 신부는 도리어 그들에게 시달림과 해를 당하면서 그릇된 대우를 받았다.
- (2) 이 부분은 신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찾는 일에서 실패함으로써 당하는 해가 무엇인가를 보여 주고 있다.
- (3)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부는 그녀가 사랑하는 자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상기하고 '사랑의 병'을 얻었다고 고백하게 된다(8절).
- (4) 신부는 자신의 꿈을 통해서 남편에 대한 자신의 부족함과 나태함을 깨닫게 되었다.
- (5) 이와 같이 성도가 남편 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을 때 그의 영혼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해 환난을 당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다.

14. ㉠ 파수하는 자들이 신부의 웃옷을 벗겨 취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

- ㉠ (1) '웃옷'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디드>는 '퍼져 나가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 <라다드>에서 유래한 명사이다.
- (2) 이사야서와 비교해 보면 <라디드>는 면사포와 같이 얼굴이 비치는 것이며 예루살렘의 귀부인들이 어깨 위에서 걸쳐 늘어뜨린 걸옷을 말한다(사 3:23에는 '너울'로 번역됨).
- (3) 그러므로 여인의 웃옷을 벗긴 것은 여인을 나체로 만들거나 능욕한 것은 아니다.
- (4) 다만 파수군들은 사랑하는 자를 찾고자 하는 신부의 동기나 목적을 알지도, 관심을 두지도 않은 채 그녀를 제지했던 것이다.
- (5) 이와 같이 한때 실수를 했어도 다시 주님을 찾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치명적인 해(害)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는 않는다(고전 10:13).

15. ㉠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였는가? (8절)

- ㉠ (1) 신부는 사랑의 시련을 당하는 꿈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왕궁 안에 있는 그녀의 처소에서 시종드는 처녀들에게 간청을 하였다.
- (2) 신부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자신의 마음이 잠시라도 나태한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그녀는 그 괴로운 심정을 ‘사랑의 병’이라고 표현하였다.

- (3) 신부는 처녀들에게 부탁한다. 즉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라고 말하였다.
- (4) 여기서 그녀는 사랑하는 자 없이는 견딜 수 없으며 또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암시하고 있다.
- (5)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과 사랑에 대해 민감해야 한다.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하고 ‘병’처럼 괴워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에게 무관심함으로 인해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희미해지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16. **㉠** 여인들은 신부에게 무엇을 질문했는가? (9절)

- ㉠** (1) 여인들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면서 그 정도의 아름다움을 지닌 신부가 집을 떠난 신랑을 찾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되어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 (2) 이 말은 아름다운 신부에 비해 집을 떠난 신랑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이와 같이 여인들이 신랑에 대한 신부의 회복된 사랑을 비난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를 비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17. **㉠** 여인들의 질문에 대한 신부의 대답은 어떠한가? (10-16절)

- ㉠** (1) 신부는 우선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회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 자’라고 소개한 후 (10절) 그 뛰어난 점을 열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 (11-16절).
- (2) 신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묘사한 것은 문자적으로 자기를 떠난 사랑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사모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 (3)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평소에 그리스도와 친밀히 교제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18. **㉠** ‘회고도 붉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회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는 <라반> (창 49:12)보다 강한 표현으로 문자적인 뜻은 ‘눈부시게 회다’이다. 이 표현은 고귀한 신분의 왕에게 적용된다.
- (2) 그러면서 붉다고 한 것은 흰 피부의 바탕에 뺨 혹은 얼굴의 다른 부분에 붉은 빛이 있었던 것을 묘사한다.
- (3) 흰 색과 붉은 색을 이렇게 중복하여 표현한 것은 생명과 아름다움이 충만함을 나타내며 또한 다른 많은 사람과 구별되게 한다.
- (4) 그리스도는 성결과 희생의 보혈로서 만 사람에 뛰어난 구세주로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19. **㉠** 아내는 남편의 용모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11-16절)

- ㉠** (1) 아내는 남편의 용모를 묘사할 때 먼저 머리(10-13절)에 대하여 말하고 다음에는 몸(14, 15절)에 대하여 말하였다.
- (2) 머리는 다시 ‘머리’, ‘머리털’, ‘눈’, ‘뺨’, ‘입술’ 등으로, 몸은 ‘손’, ‘몸’, ‘다리’, ‘형상’ 등으로 묘사되었고, 마지막으로 ‘입’에 대해 언급되었다.
- (3) ‘눈’은 비둘기 같고 아름답게 박혔다고 했다. 여기에서 눈은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 즉 전지성을 상징한다(계 1:14; 2:18).
- (4) ‘뺨’을 비유한 ‘향기로운 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메르카힘>은 색깔이 조화된 향기로운 식물로서 그리스도의 부드럽고 온화한 모습을 나타낸다.
- (5)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백합화와 몰약과 같이 매우 귀중하며 권위 있음을 가리킨다.

- (6)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황옥이나 황금처럼 매우 귀중한 것임을 가리킨다.
- (7) 몸은 히브리어로 <메아임>인데, 신체의 속부분을 의미하므로 그리스도의 성결을 가리킨다.
- (8)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수행할 때의 확실성을 상징한다.
- (9)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다고 했다. 이것은 백향목이 무성한 레바논처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경건한 신앙인들이 배출될 것을 말한다(시 92:12).
- (10) '입'은 심히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다는 비유이다(시 119:103).

화보자료

문틈으로 손을 넣은 사람. 아래 그림은 밖에서 빗장을 열려고 문틈으로 손을 넣은 사람의 모습이다. 원래 팔레스틴 지방의 풍습으로는 이 같은 행동은 믿을 만한 친구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본장을 보면 신랑이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와 자신의 사랑을 호소하면서 문을 열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다(2-6절). 여기에서 아내를 찾아온 남편은 택한 자들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참조. 계 3:20).

연구자료

올바른 성 윤리(性倫理)

1. 서론

급변하는 세계 정세 가운데 현대인들의 성 윤리관은 개방적인 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다. 사람들은 점차 성(性)에 대하여 도덕 지향적인 태도를 갖기 보다는 쾌락 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우리는 '성의 상품화'라는 물결을 맞이하고 있다. 영화나 신문, 잡지, 소설, 그리고 안방을 점령하고 있는 TV의 내용들은 대부분 성적 충동을 자극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다. 상품을 팔기 위한 광고 역시 사람들의 성적 심리에 호소하고 그로부터 관심을 촉발하는 것들 일색이다. 더우기 놀라운 것은 이러한 풍조가 기독교인들의 의식 속에도 은연중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나간 세계 역사를 돌이켜 보자. 어느 사회이건 간에 그릇된 성 윤리에서 비롯된 성적 타락의 결과는 사회의 붕괴와 국가의 멸망이었지 않는가! 우리는 소돔 고모라의 멸망(창 19장)과 로마 제국의 몰락이 극도의 사치와 성적 방탕의 결과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의 사회가 그릇된 성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성(警省)해야 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본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성 윤리를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올바른 성 윤리관이 어떠한 것인지를 재정립해 보려고 한다.

2. 성경적 가르침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적 성 윤리관은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 의연한 것이라고 부정해 버리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까닭은 그들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성의 본질을 오해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면 성경은 성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① 하나님께서는 성(性)에 관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보셨으며 사람들이 구속(救贖)의 기쁨과 아울러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셨다(참조. 18, 19절; 전 9:9; 요 3:29). 즉 성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 중의 하나인 것이다.

② 이러한 의미에서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이로써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여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여기서 결합이란 정신적 결합 뿐만 아니라 육체적 결합까지도 의미하는데 육체적 결합은 곧 '성 관계'(sexual intercourse)를 뜻한다(창 2:18-25).

③ 따라서 사랑하는 부부간에는 자연히 보다 깊은 사랑의 감정을 체험하기 위한 성적 욕망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욕망 자체

는 죄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남녀간의 성적 욕망은 결혼에 의해서만 충족되어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범죄 행위가 된다는 점이다(참조, 레 18:6-23; 고전 7:2-5).

④ 그러므로 성교(性交)는 단순히 쾌락만을 위한 유희거리가 될 수 없으며 또 그렇게 취급되어서도 안 된다. 성경에서 '성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히브리어 <야다>는 '안다'(know)라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이 말은 곧 두 남녀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가장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⑤ 간음은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범죄 행위이다. 이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선서한 신성한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며 둘째, 비정상적인 성교라는 점에서 죄이다(참조, 마 19:3-9). 여기서 비정상적인 성교라는 말은 타인과의 불법적인 성 행위, 즉 혼외(婚外)의 성 관계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고 행하는 성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간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인격과 요구를 무시한 일방적인 성 행위는 옳지 않은 것이다.

⑥ 한편 '음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누트>인데 '창녀 같은 행위를 한다'는 말에서 유래되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포르노스>, <포르네이아> 등이 있는데 모두 '더럽고 저질스러운 성 행위'를 의미한다. 오늘날 무단으로 방영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포르노 비디오'(porno video)도 바로 이 같은 말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⑦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는 '음행'이라는 말은 본래 남자와 창녀 간의 성 행위를 의미하였으나 후에는 혼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의 성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참조, 마 5:32; 행 15:20; 계 2:21).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던 음행에 대하여 경고하였는데 그 음행이란 자식이 아버지의 아내, 즉 어머니(여기서 어머니는 계모로 추측됨)와 성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고전 5:1).

⑧ 이상과 같은 가르침을 좇아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순결한 생활을 하여야 하는데 특별히 성도들은 이러한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 왜냐하면 '성도'(헬, 하기오스)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따라 살도록 부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2). 이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권면의 말을 잊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살전 4:3-6).

⑨ 위에서 살펴본 것에 덧붙일 점은 음행한 연고가 아닌 기타의 연고로 인한 이혼이나 동성 연애와 같은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며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참조, 신 24:1; 마 5:32; 19:3). 이혼과 동성 연애는 하나님

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물의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도 이혼을 승인하기에 앞서 화해를 중용하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동성연애 행위를 제재하고 있는 것이다.

3. 결론

멸망 직전의 로마 사회에서는 순결 자체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혼이란 제도마저도 쓸모가 없었다 한다. 윌리엄 버클레이(William Barclay)는 데모스테네스(Demosthenes, B.C.384-322)의 말을 인용하여 당시 로마의 사회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창녀들을 가지고 있으며 몸을 돌보기 위하여 가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집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하여 아내를 소유하고 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성실할 것 같으면 다른 여자와 성 관계를 갖는 것은 조금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사회가 바로 이 같은 로마 사회의 양상을 답습하고 있으며 우리의 사회에까지도 그러한 풍조가 침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를 우려하여 사회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성 교육 실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니 이는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지금까지 교회는 강단에서 성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꺼려 왔다. 그러나 이는 마땅히 지양해야 할 자세로서 교회는 못 사람들에게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성 윤리관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사명도 지니고 있다. 외설스런 잡지나 그릇된 서적 등을 통하여 배우는 성 지식 및 윤리관은 오히려 개인의 앞날을 그르치며 사회의 장래를 어둡게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교회내에서도 한시바삐 성경적인 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성 윤리의 붕괴는 사회 붕괴의 전조(前兆)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그리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고전 6:18)이라는 말씀도 잊지 말자.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니 더 이상 우리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고전 6:19, 20).

제 6 장 시련을 이기고 사랑이 회복되다

단락구분 1.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 / 2-3 아내의 대답 / 4-9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칭찬하다 / 10 예루살렘 여자들의 감탄 / 11-12 신부가 자기의 순수한 마음을 고백하다 / 13 여자들의 초청 / 14 신랑이 덧붙여 말하다

1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2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3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4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다르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엄위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5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네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6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꼴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고

7 너울 속의 너의 뺨은 석류 한 쪽 같구나

8 왕후가 욕심이요 비빈이 팔심이요 시녀가 무

수하되

9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10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밝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 여자가 누구인가

11 꿀짜기의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 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12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3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14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1. ㉠ 본장은 전장(前章)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 ㉠ (1) 전장에 잠시 시련을 당한 부부간의 사랑은 본장에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을 보여 준다.
 (2) 이미 전장 후반부(10-16절)에서 신부가 말한 신랑을 향한 고백을 통하여 사랑의 회복을 느낄 수 있었다.
 (3) 그런데 본장에서는 신랑이 나타나 이전(4:1-5)과 변함없는, 아니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을 고백함으로(4-9절) 부부간의 사랑은 더욱 아름답게 무르익어 간다.
 (4)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나태함이 있을 때 그것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더욱 큰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5) 우리의 나태함과 실수는 물론 분명한 죄(罪)이지만 이러한 회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과 자비의 덕택이다(참조, 롬5:20;6:1, 2).

2. ㉠ 예루살렘 여자들의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절)

- ㉠ (1) 떠난 신랑을 찾고 있는 신부를 비난하던 예루살렘 여자들은 신부가 신랑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는 신부의 말에 설득되었다.
 (2) 이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영적인 신랑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소유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나약한 신앙을 가진 형

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하며 격려해야 한다.

- (4) 이렇게 영적인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의 동료 성도들, 복음 사역자,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확신하도록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

3. **Q** 신부는 자기의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에 있다고 대답하였는가? (2절)

- A** (1) 신부는 자기 신랑이 자기 동산, 향기로운 꽃밭에서 양 떼를 먹이고 있다고 대답했다.
 (2) 이것은 신랑 솔로몬 왕이 실제로 동산에서 일하거나 휴양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신부는 신랑이 자기와 교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이다.
 (3) 어떤 학자는 솔로몬이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백합화를 꺾는다’는 것을 잠시 동안 그의 다른 아내들과 즐기는 것을 암시한다고 보았다 (O. Zöckler).
 (4)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신부가 신랑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즉 신부의 사랑과 관심이 꿈의 상태로부터(5:3)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이다.
 (5) 우리 성도들도 항상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잘 기억하여 그와 친밀한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한다.

4. **Q** 신랑과 신부가 서로에게 속하였다 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3절)

- A** (1) 아내는 더욱 남편에 대한 친밀함을 고백한다. 즉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하였다.
 (2) 이와 같은 표현이 2:16에도 나타난 적이 있다. 그러나 순서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즉 본절에서는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가 먼저 나왔다.
 (3) 이것은 아내의 마음이 남편을 먼저 인정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4) 이처럼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서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전 7:4).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Q** 신랑은 아내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가? (4절)

- A** (1) 신랑은 아내의 어여쁨을 ‘디르사’로, 고움을 ‘예루살렘’으로, 엄위함을 ‘기치를 벌인 군대’로 각각 비유하며 칭찬하였다.
 (2)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주위의 환경이 아름답기로 소문난 성읍으로(왕상 14:17) 신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기에는 적절한 성읍이었다.
 (3) ‘엄위함’으로 번역된 <에미마>는 함 1:7의 <아음>과 함께 ‘놀래다’란 의미의 어근에서 유래되었다. 여기서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

6. **Q** 신랑이 자기 신부를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은 두려운 존재’로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A** (1) 이것은 다음 절에서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라는 말과 연결되어진 표현이다.
 (2) 이러한 표현의 뜻은 그 여자가 보통 남자들을 무섭게 위압한다거나 그 여자가 한 번 보면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거나 하는 의미는 아니다.
 (3) 이 표현은 특별히 남편 솔로몬에게만 해당된다. 특히 남편의 마음에 그 여자의 뜨거운 애정이 그 여자의 눈을 통해서 나타날 때를 표현한 것이다.
 (4) 여기서 우리는 신부 솔람미 여인이 그녀의 사랑스러운 상냥함으로 아름다울 뿐 아니라 어떠한 허식적인 구애도 물리칠 수 있는 왕비다운 위엄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5) 교회의 아름다움은 깃대 든 군대의 아름다움 같이 꾸밈없는 아름다움이다. 이는 교회가 군대,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이다.
 (6) 신자는 거대한 군대 가운데 속한 개개의 십자가 군병이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기를 든

군사로서 우리의 대장되시는 분이 기쁨과 긍지를 느끼시도록 '진실' 해야 한다.

7. **㉠** 신랑의 칭찬은 신부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어떠한을 보여 주는가? (5-7절)

- ㉠** (1) 신랑의 칭찬은 결혼식 무렵에 주어진 신랑의 고백(4:1-3)을 거의 반복하고 있다.
 (2) 이전에는 여덟 부분에 대해 칭찬하였으나 이번에는 그중 네 부분(눈, 머리털, 이, 뺨)을 다시 반복하여 칭찬하고 있다.
 (3) 이렇게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떤 특별한 의미를 보여 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4) 즉 신부가 잠시 가졌던 나태한 마음에도 불구하고(5:8) 신랑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다는 의미이다.
 (5) 오히려 신랑의 사랑은 새로 첨가된 칭찬(4, 8-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더 뜨거워졌다.
 (6)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에서 돌이킬 때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 주신다.

8. **㉠**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에게 한 사랑의 고백은 어디에서 절정에 이르는가? (8, 9절)

- ㉠** (1) 솔로몬 왕은 자기에게 왕후가 60, 비빈이 80 그리고 수많은 시녀들이 있었으나 솔람미 여인만이 자기의 순결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고백했다. 여기에서 사랑의 고백이 절정에 이른다.
 (2) 한편 왕후와 비빈의 수자는 아가서의 연대가 솔로몬 통치 초기임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솔로몬 통치 후기의 사건들이 기록된 왕상 11:3에서는 왕후가 700이요, 비빈(빈장)이 300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3) 당시 궁전 안에는 것처럼 많은 여인들이 있었으나 솔람미 여인의 빼어난 미모와 덕망에 비길 수 있는 여인은 아무도 없었다.
 (4) 이와 같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인 것이다. 특별히 순결함과 진실함에 의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9. **㉠** 10절에 나오는 찬사는 누구의 딸인가?

- ㉠** (1) '아침 빛'과 '달'과 '해'와 '군대'라는 말들은 솔람미 여인의 천사 같은 아름다움에 매혹된 예루살렘 여자들(왕후, 비빈)이 그녀를 향해 쏟아 놓은 찬사이다.
 (2) 여인들의 세계에서 솔람미 여인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하다. 하늘에서 산 너머로 땅에 비치는 아침 빛같이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신선하고 뚜렷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해나 달과 같다.
 (3) 이와 같이 교회의 영광은 매우 새롭고 압도적인 것이다. 교회는 어두움의 세력을 진리의 빛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영적인 군대이다(참조, 눅 1:78, 79).

10. **㉠** 솔람미 여인은 무엇을 회상하고 있는가? (11, 12절)

- ㉠** (1) 신부 솔람미 여인은 신랑의 지극한 칭찬에 대하여 처음 만날 때의 사랑을 회상하며 그때의 순수함을 고백하고 있다.
 (2) 그때 그녀는 전원 생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 '호도(胡桃) 동산'으로 내려갔다가 수레를 타고 온 왕을 보고 사랑하게 되었다.
 (3) 그녀는 왕의 단순한 포로가 아니라 사랑의 힘에 정복당한 여자였다. 그녀로 하여금 왕의 수레에 오르게 한 것은 사랑의 힘이었다. 그 후 왕은 그녀의 집으로 그녀를 찾아왔다(2:8-14).
 (4) 여기서 솔람미 여인은 이렇게 첫사랑의 순간을 회상함으로 남편과의 사랑이 순수함을 고백한다.
 (5) 우리도 주님과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그 순수함을 늘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계 2:4, 5).

11. **㉠** 솔람미 여자에게 돌아오라고 요청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13절)

- ㉠** (1) 당시 솔람미 여자는 동산에서 왕궁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녀가 있는 그 동산

에는 그녀의 단순함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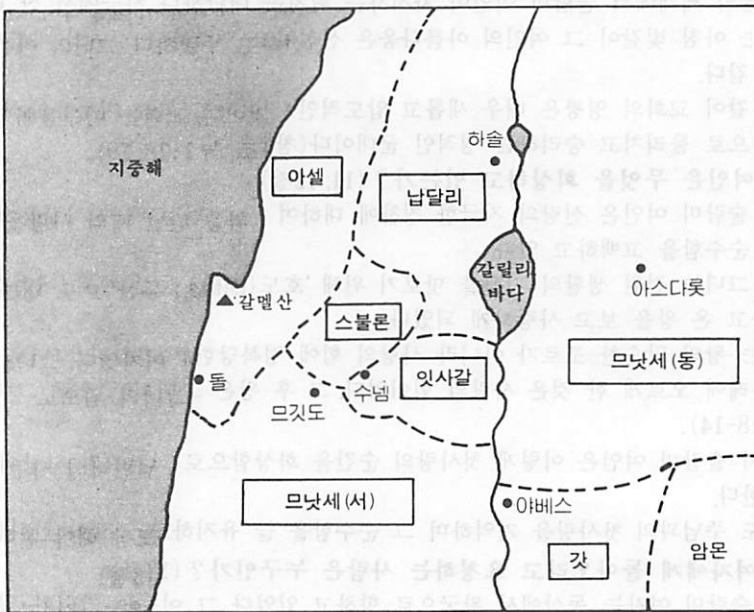
- (2) 그러나 동산에 있는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그녀에게 돌아오기를 요청했다. 본문 중에 ‘우리로’라는 말이 그러한 사실을 말해 준다.
- (3) 비록 그리스도인이 순수함과 소박함을 추구하며 많은 사람이 있는 곳을 피하려 할지라도 세상에서는 그를 요청한다.
- (4) 즉 성도들은 항상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만 동시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도 수행해야 한다(마5:13-16).

12. **Q** 예루살렘의 여자들이 돌아오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13절)

- A** (1) 본문에 ‘돌아오라’는 호소가 네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그녀들의 요청이 매우 간곡한 것임을 보여 준다.
- (2) 그들의 요구는 신부가 거기 남아 있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녀를 보기를 원한다는 데에 있다.
- (3) 특별히 그녀들은 신부의 춤추는 모습을 보기 원했다. 이것은 다음 절(14절)의 솔로몬의 말에서 알 수 있다.
- (4)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네 춤을 보게 하고 그래서 네 자태와 율동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게 하라’란 뜻으로 볼 수 있다.

13. **Q** ‘술람미’의 뜻은 무엇인가? (13절)

- A** (1)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솔로몬의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이 본절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 (2) 술람미 혹은 술렘은 ‘수넵’과 같은 곳이다(수 19:18; 왕상 1:3; 왕하 4:8). 그러므로 술람미 여자는 수넵의 여인을 의미한다.
- (3) ‘술람미’라는 단어는 고유 명사가 될 수 없다. 이는 관사가 그 단어에 붙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출신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는다. 70인역은 <헤 수나미티스>라고 하여 수넵에서 온 여인’이라고 번역했다.
- (4) 한편 ‘수넵’은 잇사갈 지파의 성읍으로(수 19:18) 오늘날 ‘사우람’(Sawlam)이란 이름으로 불리워진다. 자세한 지형은 아래 지도를 참조하라.



14. **Q** '마하나임의 춤추는 것'이란 무슨 의미인가? (14절)

- A** (1) <마하나임>은 '천사의 두 무리'라는 뜻이다(창 32:1, 2). 천사의 '춤추는 것'이란 매우 아름답고 우아한 표현으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비유한 것이다.
- (2) 당시 '마하나임'은 한 갓 지파에 속한 작은 도시로서(참조, **Q**13의 지도) 그곳 원주민들의 춤은 잘 알려져 있었다(참조, 삼하 17:24).
- (3) 이렇게 춤은 종종 성경에 언급되었는데 신부가 그녀의 남편 앞에서 춤추는 것이 그녀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은 절대로 아니었다.
- (4) 이와 같이 회개한 성도가 기뻐 춤추며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다(참조, 사 6:3).

화보자료

신부(新婦). 아름다운 전통 혼례복을 입은 예멘(Yemen)의 신부 모습은 다른 문화권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매혹적으로 보인다. 하물며 그 신랑이 보기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성경에서는 아내를 얻은 자를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자로 표현하였다(잠 18:22). 따라서 남자는 자신이 취한 아내를 아끼고 칭찬하며(4-10절) 그녀만을 즐겨워하고 그 품만을 항상 족하게 여겨야 한다(참조, 잠 5:18, 19).

연구자료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디르사(Tirzah)

‘디르사’라는 말은 ‘즐거움’이란 뜻의 히브리어 〈티르차〉에서 유래된 단어이다. 이 도시는 본래 에브라임 산지 북쪽에 있던 가나안의 왕도였으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시에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하였다(수 12:24). 그 후 분열 왕국 시대에 이르자 디르사는 오므리(Omri, B. C. 885-874) 왕이 사마리아로 환도(還都)할 때까지 잠시나마 북왕국의 수도가 되었다(왕상 16:23, 24). 즉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Jeroboam I, B. C. 931-910)가 디르사에 거주한 이래(왕상 14:17) 엘라(Elah, B. C. 886-885), 시므리(Shimri, B. C. 885)와 같은 자가 이곳에서 즉위하였던 것이다(왕상 16:8-10). 이러한 도시인 디르사의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서는 학자들간에 의견이 분분하나 대체적으로 요단 계곡으로 들어가는 ‘와디 파라’(Wadi Farah)의 내리막 길목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길은 요단 강 동편에서 에브라임으로 가는 길 중 제일 좋은 길이며 서쪽으로 연결되어 벳라간(Beth-Laggan) 사마리아, 도단, 등을 지나 이스라엘 평지에 닿는다. 이 주변의 경치는 대단히 아름다운데 특히 디르사가 위치한 계곡은 석회석을 깎아 내고 거기에 좋은 흙을 덮은 것 같아 주변과는 독특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아름다움은 본서에서도 언급되고 있어서 저자는 연인의 아름다움을 디르사에 비견하였다(4절). 한편 디르사의 역사는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성경에 나타난 그 개략(概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므리가 엘리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므리를 왕으로 세운 후 디르사를 탈환하러 나섰다. 마침내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본 시므리는 왕국에 불을 놓고 자살하였다. 그로부터 6년 후 오므리는 수도를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옮겼다(왕상 16:8-24). 이로 인해 디르사는 일개 지방으로 전락하고 점차 그 명성을 잃어 갔던 것 같다. 그런데 1946년부터 이곳에서의 발굴 작업을 진행하였던 도미니카 수도회(Dominican)의 신부 페르 드 보(Pere de Vaux)와 스테브(Steve)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크기의 옛 도시 터를 발견하였다. 이처럼 디르사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북왕국의 수도라는 명성에 걸맞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제 7 장 더욱 깊어지는 사랑

단락구분 1-5 신부의 춤에 대한 궁녀들의 찬사 / 6-9 신부를 기뻐하는 신랑의 노래 / 10 성숙한 사랑의 고백 / 11-12 신부가 자기 고향으로 신랑을 초청하다 / 13 사랑의 꽃과 사랑의 실과

1 귀한 자의 딸아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등글어서 공교한 장식의 만든 구슬 꿰미 같구나

2 배꼽은 쉬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3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4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 뽕 문 결의 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5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 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6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7 네 키는 종려나무 같고 네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8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들 잡으리라 하였나니 네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9 네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 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10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11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12 우리가 일찌기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돌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13 함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 것, 목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구나

1. Q 본장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라.

- A (1) 시련을 당한 사랑은 6장에 나타나듯 신부의 예민한 정감(情感)과 신랑의 한결 같은 애정으로 더욱 견고히 되어 갔다.
- (2) 이제 본장에서 신부의 아름다움은 하나의 춤으로 나타나면서 궁녀들의 찬사(1-5절)와 신랑의 감탄(6-9절)을 받게 되었다.
- (3) 그리고 신부는 보다 성숙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사모하던 소박한 자기 고향으로 신랑을 초청했다(10-13절).
- (4) 이러한 과정을 거쳐 두 사람의 사랑은 완전한 단계로 진입하여 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완전히 속한 상태에서(10절) 순수한 사랑이 시작되었던 술람미의 고향으로 이야기의 무대가 옮겨지기 때문이다.
- (5)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속하여지고, 또 처음 사랑이 계속 유지되어 갈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

2. Q 예루살렘 여인들(궁녀들)은 춤추는 신부의 발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1절)

- A (1) 여인들은 신을 신은 신부의 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 둥근 넓적다리를 정교한 구슬 꿰미로 비유하고 있다.
- (2) 이러한 비유의 목적은 우아하게 춤추는 여인의 아름답고 유연한 동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활기와 우아함이 깃든 몸의 곡선이 구슬 꿰미가 앞뒤로 흔들리는 것에 비교되었다.
- (3) 춤추는 모습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넓적다리 또는 허리에서부터 몸의 중심 부분으로 계속 전개된다.

- (4) 우리는 이러한 상세한 설명에서 상징적 의미를 발견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묘사의 전반적인 의미는 신부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다.
- (5) 그리스도의 교회가 활동력과 생명력이 넘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가장 기쁜 것이다. 그때에 교회는 모든 분야에서 아름다움과 탁월함을 나타낼 것이다.

3. **㉠** 여인들은 신부의 배꼽과 허리를 무엇에 비유하였는가? (2절)

- ㉠** (1) 여인들은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등근 잔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노래하였다.
- (2) 여기에서 ‘배꼽은 썩은 포도주를 부은 등근 잔’이라는 말은 칠편, 물이나 술을 탄 포도주와 같이 신부의 춤추는 모습이 우아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들쭉, 춤을 추는 신부의 모습 중 배꼽이 그녀의 울동에 따라서 마치 등근 잔에 담긴 포도주의 흔들리는 모습과 같이 물결치고 있음을 나타낸다.
- (3) 또한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란 말은 신부의 균형잡힌 몸매와 더불어 흠없고 순결을 간직하고 있는 듯한 그녀의 하얀 피부를 칭송하는 말이다.
- (4) 이같이 여인들의 눈에 비친 솔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했다.

4. **㉠** ‘두 유방’은 어떻게 비유되었는가? (3절)

- ㉠** (1) ‘암사슴의 쌍태 새끼’로 비유되었다. 이 말은 여인들에 의해 표현된 것이지만 이전에는 왕에 의해서 언급된 바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 (2) 즉 4:5에서는 ‘백합화 가운데서 꿀을 먹는’이라는 말이 덧붙여 있다. 이 말이 생략된 이유는 백합화가 방금 전에 언급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3) 4:5에서 이 비유는 신부의 아름다움의 절정을 표현하는 데 쓰여졌으나 본절에서는 신부의 춤추는 울동 속에서 이루어지는 균형을 표현하고 있다.
- (4) 성도가 유모처럼 새로운 신자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절정인면서 동시에 교회를 균형있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귀중한 사역이다(참조, 살전2:7, 8).

5. **㉠** ‘목’과 ‘눈’과 ‘코’에 대한 묘사가 오늘날 교회에 대하여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여인들은 신부의 목을 ‘상아 망대’로, 눈을 ‘연못’으로, 코를 ‘레바논 망대’로 각각 비유하여 노래하였다. 이것은 왕의 묘사(4:4)와는 다른 새로운 묘사이다.
- (2) ‘목’은 성도의 신앙을 의미한다. 몸된 교회를 머리되신 그리스도께 연합시키는 성도의 신앙은 마치 ‘상아 망대’와 같이 회고 순결하며 견고해야 한다(참조, 롬 4:20; 벰전1:7).
- (3) 또한 ‘눈’은 성도의 이해력(悟性)과 분별력을 의미한다. 성도의 영적인 눈은 연못같이 맑아서 진리를 옳게 판별하며 육안(肉眼)으로 볼 수 없는 영계(靈界)를 보게 된다(참조, 히 11:1-3, 27; 벰전 1:8, 9).
- (4) 한편 ‘코’는 동물들이 냄새로 물건을 분별하듯이 여러 가지 사물들을 식별할 수 있는 성도의 영적 총명을 의미한다. 성도의 지혜는 레바논 망대처럼 원수의 생각과 전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6. **㉠** ‘머리’에 대한 비유는 어떠한가? (5절)

- ㉠** (1) 머리는 ‘갈멜 산’으로 비유되었다. ‘갈멜 산’은 꼭대기가 평탄하며 정상을 제외하고는 나무가 우거진 곳이다.
- (2) 또한 솔람미 여인의 자주빛 머리털은 왕이 입은 옷 색깔과 동일한 빛깔이다. 그런데 그것은 고귀함을 상징한다.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다’라는 말은 솔로몬 왕이 솔람미 여인의 머리카락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는 의미이다.
- (3)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내면적인 태도와 아름다움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돌보신다(마 10:30).

7. ㉠ '사랑아'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6절)

- ㉠ (1) 여기에서 '사랑' 이라는 추상적인 말이 구체적인 '사랑하는 자' 대신에 사용되었다.
 (2) 솔로몬 왕은 이 말을 통해서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쾌락을 의미하지 않고 부부의 교제에서 얻어지는 순결한 기쁨을 말하고 있다.
 (3)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성도의 순결을 요구하시며 또한 이런 순결을 제공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8. ㉠ 신부의 키는 무엇으로 비유되었는가? (7절)

- ㉠ (1) 신부의 키는 '종려나무' 같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종려나무는 그 우아함 때문에 선택되었을 것이다.
 (2) 종려나무는 보통 야자나무로 불리우는데 키가 약 20m 가량 자라며 그 줄기의 끝부분에는 깃털 모양의 잎이 퍼진다. 또한 줄기 끝에는 암갈색 혹은 주홍색의 열매가 매달려 있어 나무의 아름다움을 더해 준다.
 (3) 종려나무는 곧게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종려나무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타마르>는 '키가 크고 늘씬한' 과 같은 칭찬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4) 따라서 이 비유는 신부로 예표되는 교회가 종려나무같이 곧으며 높아서 어두운 세상에 휩쓸리지 않을 것을 가리킨다.

9. ㉠ '종려나무' 의 비유가 주는 생활의 교훈은 무엇인가? (7절)

- ㉠ (1) 종려나무는 번영과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시 92:12). 그래서 종려나무의 모양으로 성전과 회당을 장식했고 후대에는 유대 돈에도 그 모양을 새겼다(참조, 왕상 6:35).
 (2) 또한 종려나무는 옛날부터 셈족에게는 거룩한 나무로 취급되었다. 초막절에는 절기 동안 날마다 회당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레 23:40; 느 8:15).
 (3) 마카비 시대에는 종려나무 가지로 승리의 표를 삼았으며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에도 승리를 표시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었다(요 12:13; 계 7:9).
 (4) 이러한 종려나무가 신부의 자태를 묘사하는 데 쓰여진 것은 부부간의 윤리가 매우 거룩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5) 비록 부부가 성적 관계를 통해 친밀해진다고 해도 그 이전에 상호 존경과 구별된 사랑이 있어야 참된 부부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벧전 3:5, 7; 고전 7:3).
 (6) 아가서의 부부애는 어디까지나 그러한 종교적이고 영적인 인생관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한다.

10. ㉠ 유방은 무엇으로 비유되었는가? (7, 8절)

- ㉠ (1) 유방은 종려나무에 달린 '열매송이' 같다고 하였고 그것이 풍성하다는 의미에서 '포도송이' 같다고 하였다.
 (2) 유방을 포도송이에 비유한 것은 풍성하고 신선한 맛을 가진 과일과 같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3) 이 포도나무는 종려나무와 같이 성경에서 교회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사용되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시 80:8),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사 5:1), 한편 신약 성경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참포도나무'에 비유하셨다(요 15:1).
 (4) 유방은 신자를 양육하는 일을 상징하는데(살전 2:7) 교회가 신자를 바로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요 15:8). 이것은 아내가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이 남편을 기쁘게 함과 같은 원리이다.

11. ㉠ '꽃김' 은 어떠하다고 하였는가? (8절)

- ㉠ (1) 신부의 꽃김은 마치 사과 냄새와 같이 향기롭다고 하였다.

(2) 여기서 ‘꽃김’은 호흡을 깊이 내쉬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평안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3) 이와 같이 성도의 모든 삶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취가 아닌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한다. 곧 이 향기란 그리스도인을 나타내는 표적이라 할 수 있다.

12. **Q** ‘입’은 무엇과 같다고 하였는가? (9절)

A (1) 입은 ‘좋은 포도주’와 같을 것이라고 하였다.

(2) 곧 그 입의 말은 포도주같이 안정과 쾌락을 제공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진정한 쾌락과 안정을 공급한다는 뜻이다(참조, 사 55:1).

13. **Q** 신부가 받아 말한 9절 후반부의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A (1) 신랑이 신부의 목소리를 가장 달콤한 포도주의 맛에 비유할 때 신부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그 포도주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위한 것이며 그 향기로써 그를 기쁘게 하고 신선하게 한다고 말했다.

(2) 신부의 기쁨은 자신이 전적으로 신랑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또 그를 즐겁게 하도록 항상 노력하는 것에 있었다.

(3) 이렇게 서로가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대방을 알세우려고 하는 것은 결혼한 부부가 계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다.

(4)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성경적 원리를 따를 때 그들의 신앙 생활에 큰 도움이 되며 또 축복이 된다. 결혼 생활의 성경적 원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다(엡 5:22-33; 골 3:18, 19).

14. **Q** 신부의 신랑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 (10절)

A (1) 두 사람간의 사랑의 관계는 2:16에서 처음 고백되어졌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2) 이보다 더욱 성숙해진 사랑의 고백이 6:3에 나타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여기서 신부는 자기가 남편에게 속한 것을 알세워 강조한다. 그녀는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려 한다.

(3) 이제 본절에서 완전한 사랑의 고백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제 신부는 자신과 남편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남편 속에 온전히 합일(合一)되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다(참조, 2:21-25).

(4) 성도도 날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더욱 성숙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져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생활로 이루어질 수 있다(막 8:34; 빌 2:5-8).

15. **Q** 신부는 신랑에게 어디로 가자고 초청하였는가? (11절)

A (1) 신부는 자신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고 초청했다.

(2) 신부는 자기를 사모하는 신랑으로 하여금 마음껏 사랑할 수 있도록 인위적이고 소란스러운 곳을 떠나서 소박한 전원과 시골로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3)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대화하는 조용한 시간들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가장 고귀한 교제를 갖는 것이 사치스런 장식이나 값비싼 예물이나 형식적인 의식에 달려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16. **Q** ‘들’과 ‘동네’는 어느것을 가리키는가? (11절)

A (1) ‘들’ (히, 싸데, field)이나 ‘동네’ (히, 코페르, villages) 라는 말은 모두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시골이나 시골 동네를 가리킨다.

- (2) 따라서 이러한 말은 포도나무와 동산으로 둘러싸인 술람미 여인의 고향마을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3) 여기서 우리는 신부가 자연의 소박함과 아름다움을 궁전의 영화로운 생활보다 더 소중히 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신자들도 그리스도와의 삶을 위해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든 천국이다.

17. **Q** 신부가 포도원으로 가자고 한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함인가? (12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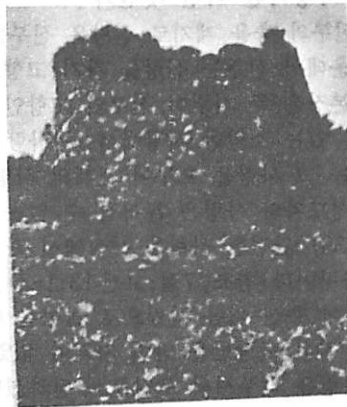
- A** (1)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기 위함' 이었다.
- (2) 여기서 포도의 움과 꽃술 그리고 석류꽃은 모두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의 정성스런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그녀가 얼마나 신랑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준다.
- (3) 그러므로 '포도원'이란 성도의 온 인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참조, 요 15:2). 성도는 그 인격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참된 영화와 결실을 맺을 수 있다.

18. **Q** 합환채(合歡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A** (1) '합환채'(히, 두다임)는 백합이 아니고 맨드레이크(mandrakes)의 열매이다. 그 색깔은 옅은 초록색이고 육두구(nutmeg) 크기의 노란 사과로 5, 6월에 열린다. 그리고 팔레스틴 특히 갈릴리에서 보통 자라는 식물이다.
- (2) 이 식물은 벨라돈나(belladonna)와 같은 과에 속하고 열매와 뿌리는 최음제(催淫劑), 즉 사랑을 복돋우는 일에 사용되었다(참조, 창 30:14).
- (3) 이 합환채는 신부의 청결과 순진한 사랑의 상징이다.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나아감에 있어서 항상 청결과 순수함과 열심을 예비해야 한다.

화보자료

포도밭의 망대.
들로 쌓여진 망대는
밭에 침입하는 도둑들과
짐승들을 막는 구실을
한다.



본장에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상아 망대로, 코를 레바논 망대로 묘사한 것은(4절) 아내의 순결 및 고귀함을 의미한다(참조, 4:4).

제 8 장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다

단락구분 1-3 신부가 완전한 사랑을 소원하다 / 4 사랑을 위한 후렴 / 5 두 사람이 처음 사랑의 장소에 오다 / 6-7 신부가 완전한 사랑을 노래하다 / 8-9 신부의 과거 회상 / 10 화평을 얻은 자 / 11-12 바알하몬의 포도원 / 13 노래를 부탁하다 / 14 마지막 사랑의 노래

1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었던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2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웠었고

3 너는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개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4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5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이고 너를 인하여 네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6 너는 나를 인하여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같으니라

7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였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8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9 그가 성벽일전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

10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11 솔로몬이 바알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 두고 그들로 각기 그 성과를 인하여서 은 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12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었고 실과 지키는 자도 이백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13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므나

14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1. ㉠ 본장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

- ㉠ (1) 전장(前章)에 나타난 신부의 춤을 계기로 신랑은 신부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이 깊어지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신부는 신랑을 자기 고향으로 초청했다.
- (2) 이러한 배경에서 이제 본장은 두 사람이 신부의 고향인 수넵에 도착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포도원이 있는 소박한 시골에서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완전한 사랑을 느끼고 신부는 그 사랑을 오누이 관계의 사랑과 비교하며 노래하였다(1절).
- (3)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은 끊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사랑이다(참조, 롬 8:39). 완전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것으로서 어떤 소유물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다(참조, 7절; 고전 13:1-3).
- (4)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때 이 완전한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계 4:2,5).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이다(엡 2:4,5).
- (5) 이 같은 의미에서 결혼한 부부(夫婦)가 추구하는 완전한 사랑도 처음 사랑의 회복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처음 결혼할 때에 함께 서약하고 결심했던 사랑의 고백을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기억하면서 지켜감으로써 완전한 부부애(夫婦

愛)는 성취되어지는 것이다(참조, 엡 5:22-33).

2. **㉠** 신부가 신랑을 향하여 오라비 같았었다라면 좋았겠다고 고백한 것은 어떤 마음의 발로인가? (1절)

- ㉠** (1) 신부는 두 사람의 상호 관계가 가장 귀하고 가장 순수하며 가능한 한 가장 오래가는 것이 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녀는 신랑을 오라비 같은 관계에서 대하기를 희망했다.
- (2) 남매 관계는 단순히 사랑하며 아끼는 관계일 뿐 아니라 혈연 관계이기도 하다. 남편과 아내와의 결합은 인간의 감정의 연약함과 변덕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심지어는 죽음도 혈연 관계를 깨뜨리지는 못한다.
- (3) 오누이 관계는 혈연 관계의 그러한 불변성을 상징한다. 부부 관계란 불변하는 오누이 관계 위에 개인적인 애정이 덧붙여질 때 비로소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다.
- (4)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좀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의 좋고 나쁨을 초월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입을 맞추다'는 것은 애정의 충만함을 절묘하고도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다. 신부는 애정의 충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존재를 신랑의 존재와 결부시키기를 원했다.
- (2) 이것은 전장에서 말하여진 신랑의 칭찬(7:6-9)에 대한 단순한 응답이 아니다. 오히려 신부의 마음에서 자유롭고 극히 자연스럽게 일어난 감정이다.
- (3) 우리의 영적인 감정도 그와 같아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의 충동이나 죽은 형식주의나 무감각한 양심 속에서가 아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참된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4. **㉠** 신부가 신랑을 자기 집으로 들이고자 했던 의도는 무엇인가? (2절)

- ㉠** (1) 신부는 신랑에게 교훈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기보다 우월한 지혜가 있음을 알았다.
- (2) 신부는 남편의 발밑에 앉아 그에게서 나오는 가르침을 받기를 좋아했다. 이것은 베다니의 마리아처럼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말씀 듣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와 교회를 상징한다(참조, 눅 10:39).
- (3) 우리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사모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신부가 그녀의 어미 집으로 남편을 모셔 들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마음의 주인이요 교사로서 우리의 중심에 모셔 들여야 한다.
- (4) 한편 이러한 원리는 실제적인 부부 생활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의 질서를 가르쳐 준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입장에서(엡 5:22, 24, 33; 골 3:18) 그의 말을 들어야 하며 그에게 가사(家事)의 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고전 14:34, 35; 딤후전 2:11, 12).

5. **㉠** '향기로운 술'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2절)

- ㉠** (1) 신부가 자기 남편에게 드리기를 원했던 '석류즙'이다. '석류즙'은 석류의 즙을 농축하여 향료와 향기가 나는 물질을 섞어 만든 과일 주스이다.
- (2) 이렇게 신부가 신랑에게 향기로운 예물을 바치고자 한 것은 교회의 헌물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다.
- (3) 성도가 값없이 받은 영적 축복의 응답으로 자기의 예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흠향하여 받으실 것이다(고후 9:6, 7).

6. **㉠** 4절의 후렴귀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 ㉠** (1) 신부는 마치 자신이 사랑하는 자의 품안에 안겨 있는 것처럼 느끼고 멀리 있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자기의 그러한 행복한 상태를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한다.
- (2)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연약함과 의지하는 마음을 나타내려고 한 것 같다. 신부는 남편

이 자신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식하여 영원히 그에게 속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를 사모해야 한다(고전 3:23).

7. **㉠** 4절의 후렴귀는 2:7;3:5과 비교해 볼 때 무엇이 생략되었는가?

㉠ (1) ‘노루와 들사슴으로’라는 말이 생략되었다.

- (2) 이러한 생략은 야생 동물과 같은 자연적인 사랑이 이제는 오누이의 사랑처럼 고차원적인 관계로 승화되었음을 의미한다.
- (3) 그녀는 외적인 용모 때문에 왕의 관심을 끄는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는 왕의 가장 귀한 친구요 누이로서 왕의 위엄과 고귀함에 동참하였다.
- (4) 이제 왕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됨으로써 그녀가 가졌던 ‘에로스의 애정’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졌다.
- (5) 우리들도 처음 그리스도를 알 때에 조건적으로 가졌던 사랑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 (6)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연인 관계, 교인 관계 등이 처음 시작은 조건적인 사랑으로 출발했어도 마지막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관계로 승화되어야 한다.

8. **㉠**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5절)

㉠ (1) 이제 이야기의 장면이 바뀌어 새로운 장소가 나타난다. 4절까지는 왕궁에서의 대화이었던으나 5절부터는 신부의 고향인 ‘수넵’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 (2) 먼저 두 사람을 보고 동네 사람들은 질문하고 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 (3) 이것은 3:6의 질문과 비교되어진다. 3:6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도성으로 오는 신부의 행렬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마치 첫사랑의 때와 같이 확신에 찬 사랑으로 남편의 팔에 자신을 의지하는 신부의 모습 가운데서 참되고 순수한 애정을 단장하며 오고 있는 한 쌍의 사랑하는 자들을 보게 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첫사랑의 회복과 완성을 느끼게 된다.

9. **㉠** 신랑은 신부를 어디에서 깨웠다고 하였는가? (5절)

㉠ (1) 신부의 어머니가 그녀를 낳기 위하여 애쓴 사과나무 아래서 그녀를 깨웠다고 했다.

- (2) 사과나무는 신부가 태어난 집 근처에 있어서 그 가지가 창문까지 내려오거나 울타리를 덮었다고 상상할 수 있다. ‘사과나무 아래’란 신부의 집을 말한다(참조, 2:8-10).
- (3) ‘깨웠다’는 것은 신부에게 첫사랑의 고백을 하였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해서 신랑은 처음 사랑의 이야기를 회상한 것이다.
- (4) 사실 성도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영적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를 회상하는 것보다 성도에게 기쁨을 주고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 (5) 우리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웠는가를 생각해야 한다(엡2:4, 5; 요일 3:1). 그러면 기도 생활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10. **㉠** 신부는 첫사랑을 회상하며 신랑에게 무엇을 부탁했는가? (6절)

㉠ (1) 신부는 신랑에게 ‘당신은 나를 인(印) 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圖章)같이 팔에 두십시오’라고 부탁했다.

- (2) ‘인’이란 도장을 박은 가락지를 가리킨다. 이것은 때때로 가슴에 매달기도 하는데 이것은 마음에 더 가까이 있음을 나타내기도 했다(창 38:18). ‘도장’은 ‘인’과 같은 뜻이다.
- (3) 따라서 신부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즉 그녀의 모습이 남편의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람과 동시에 자기는 남편의 팔에 있는 도장과 같이 떼어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한다(참조, 출 28:29; 호 11:3).

(4) 우리도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첫사랑의 때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새겨지고 또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을 것을 간구해야 한다.

11. ㉠ 신부는 완전한 사랑을 어떻게 노래했는가? (6, 7절)

㉠ (1) 그녀는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사랑의 기세는 여호와와 불과 같다고 노래했다.

(2) 이 사랑은 끝 수 없는 불꽃이며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기쁨에 찬 고백을 상기하게 된다(롬 8:38; 고전 15:54).

(3) 참된 교회의 고난과 수난의 역사가 이러한 고백을 입증해 준다. 박해의 홍수가 교회를 휩쓸고 간 후에도 이 사랑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이 사랑의 불은 꺼지는 듯했다가 다시 금 일어나 '여호와와 불'과 같이 되었다(참조, 출 3:2).

(4) 그러므로 완전한 사랑은 아가페, 즉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것은 조건이 없이 주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의 변화도 그 사랑을 중단시킬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조건적인 사랑은 궁극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한다.

12. ㉠ 완전한 사랑의 가치는 무엇인가? (7절)

㉠ (1) 이 사랑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세상에서 가장 재산이 많은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것이다.

(2)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을 뿐 아니라 강요할 수도 없다. 이 사랑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이며 마음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솟아나는 것이다.

(3) 완전한 사랑인 '아가페'는 세상의 재물이나 금이나 은 또는 외적인 선행(善行)으로 얻어질 수 없다. 이 사랑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성도들 안에서 발견되어진다(참조, 요일 3:17; 4:12).

(4) 이 사랑은 독특한 힘과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성도의 삶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사랑의 결핍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며 동시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제공한다(요 10:10).

13. ㉠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란 누이를 가리키는가? (8절)

㉠ (1) 여기에서 '작은'이란 나이가 어린 것을 의미한다(참조, 왕하 5:2).

(2) 따라서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란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그녀의 어린 시절에 그녀를 향해서 사용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3) 이런 사실은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라는 그녀의 오빠들의 이야기 속에 잘 나타나 있다.

(4) 왜냐하면 유방이란 여인들의 성숙도를 나타내 주는 대표적인 신체 부위로서 유방이 아직 없다는 것은 곧 성숙하지 못한 어린 나이임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5) 한편 '작은 누이'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 또는 초심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상징한다.

(6)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이 그들의 작은 누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호자로 나섰듯이 교회나 믿음의 심도(深度)가 깊은 성도들은 먼저 된 자들로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형제'라고 여기면서 이끌어 줄 책임이 있다(참조, 히 10:24).

14. ㉠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과거에 여동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가? (9절)

㉠ (1) 그들은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망대(銀望臺)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드리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다.

(2) 여기에서 '성벽'이란 적들의 모든 공격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강함과 건실함을 상

징한다. 반면에 ‘문’은 잠겼을지라도 언제나 다시 열 수 있는 연약함과 불안정을 상징한다.

- (3) 또한 ‘은망대’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은으로 장식된 망대를 가리키며 ‘백향목 판자’는 다른 어떤 나무 판자보다도 단단하고 수명이 긴 특성을 지녔다.
- (4) 그러므로 오빠들의 고백은 여동생이 성벽처럼 닦쳐오는 모든 유혹을 물리칠 경우 최상의 보상, 즉 그녀의 처녀다운 덕목과 절개에 대한 찬사로 그녀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겠다는 의미이다.
- (5) 그와 동시에 여동생이 유혹자들의 유혹에 넘어갈 위태한 지경에 빠질 경우 백향목 판자로 문을 막듯이 보호하겠다는 뜻이다.
- (6) 이와 같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은 그녀를 보호하는 가장 가까운 파수꾼이요, 조연자들이었고 특히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의 뜻을 실천한 선배들이었다(참조, 창 24:50, 55; 34:6-8).
- (7)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격려하고 그릇된 길로 갈 경우 바른길로 다시 이끌기 위해 충심 어린 조언을 해야만 한다(참조, 딤후 4:2).

15. **㉠** 오라비의 관심 속에 자라난 술람미 여인의 현재 모습은 어떠한가? (10절)

- ㉠** (1) 그녀는 오라비의 관심 덕택으로 순결하고 경건하게 자라났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 (2) 즉 그녀는 강한 성벽처럼 자신을 유혹하는 모든 시험을 물리쳤으며 또한 망대와 같은 신성한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녀는 축복된 결혼을 통하여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던 것이다.
- (3)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아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성숙한 한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을 예표한다.

16. **㉠** 솔로몬 왕은 포도원 관리를 어떻게 하였는가? (11, 12절)

- ㉠** (1) 솔로몬은 ‘바알하몬’ (수넵에서 매우 가까운 평원)에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 (2) 그는 그것을 술람미 여인의 오라비들에게 맡기어 포도 수확기에 은 1,000 세겔을 세(稅)로 바치게 하였고 그들에게는 1인당 은 200세겔씩을 지급하였다.
- (3) 술람미 여인의 형제들은 술람미 여인이 처녀로 있을 때에 순결과 덕을 지켜 준 것으로 이러한 기업(基業)을 왕으로부터 받았다.
- (4) 여기서 우리는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포도원을 교회의 모형으로 볼 때 지키는 자들은 교회의 사역자 또는 여러 일꾼들을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5) 이들과 솔로몬이 회계하였듯이 하나님도 마지막 날 성도들, 즉 교회의 일꾼들과 회계하실 것이다(마 25:14-30; 히 13:17).

17. **㉠** 신랑은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무엇을 부탁했는가? (13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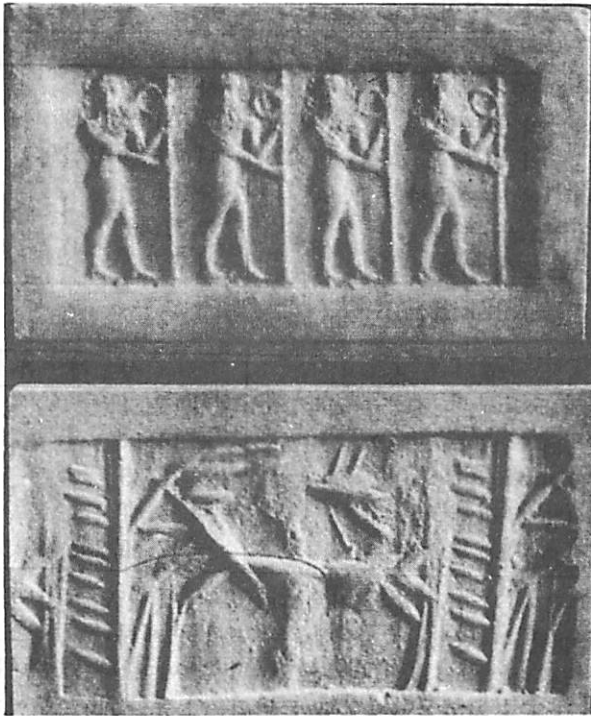
- ㉠** (1) 신랑은 신부의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신부에게 노래를 청하고 있다. 즉 그는 완전한 사랑을 기뻐하면서 신부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했던 것이다.
- (2) 신랑은 신부를 ‘동산에 거한 자’라고 부른다. 이 말은 신부가 첫사랑의 순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칭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께서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를 일컫는 호칭으로 볼 수 있다.
- (3) 오늘도 주님께서는 순결한 신앙을 가진 성도의 기도와 노래를 듣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울 때 찬송하면서 늘 주님과 교제하는 데 힘써야 하겠다(약 5:13).

18. ㉠ 신부의 마지막 노래가 갖는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14절)

- ㉠ (1) 그녀는 첫사랑 시절에 끈질 붙렀던 연가(戀歌, 2:17)의 한 부분을 부름으로 신랑의 요청에 답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 (2)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의 기원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 계시록' 마지막부분에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재림을 대망하였다.
- (3) 동시에 이 말씀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의미하고 있다. 특별히 '향기로운 산들'은 높은 곳으로 사단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데(계 21:10) 그곳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곳이다(합 3:19).

화보자료

원통형 인장의 날인(捺印). 인장에는 반지형, 타원형 등의 여러 형태가 있는데 아래는 원통형 인장이 찍힌 모습으로서 B. C. 20-30세기의 것이다. 높이는 각각 3.3cm(上), 2.6cm(下)이다.



고대 사회에서 인장은 어떠한 대상물이 자신의 소유임을 밝힐 경우 (6절) 이외에 자신의 신분과(참조, 장 38:18, 25) 권위, 동의를 표시할 때에도 사용되었다(참조, 장 41:42; 에 3:10).

연구자료

성경에 나타난 불(火)

본장에서 사랑은 '여호와와의 불'로 묘사되었다(6절). 이는 사랑의 강렬함과 그 무엇도 방해할 수 없음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본고(本稿)는 이 기회에 성경에 나타난 여러 형태의 '불'을 살펴 보려고 한다.

1. 불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난 경우

내 용	성 경 귀 절
하나님께서 현현(顯現)하실 때	창 15:17; 출 3:2
하나님께서 제사를 열납하심	레 9:24; 왕상 18:38
하나님의 임재	출 13:21, 22; 19:18
악인에 대한 심판	레 10:1; 민 16:35
선지자 엘리야의 승천	왕하 2:11

2. 불이 상징하는 것

상 징	성 경 귀 절
용서와 정결케 함	사 6:5-7
하나님의 말씀	렘 5:14; 23:29
하나님의 진노	나 1:6; 히 12:29
하나님께서 보호하심	슥 2:5
그리스도의 능력	눅 12:49
그리스도의 재림	살후 1:7

3. 심판의 도구로서의 불

내 용	성 경 귀 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창 19:24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레 10:1
고라의 추종자 250인	민 16:35
악인들에 대한 심판	마 25:41
종말론적 심판의 도구	눅 17:29, 30; 벰후 3:10-12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 구약의 제사나 그리스도의 능력(눅 12:49)에 나타난 모습대로의 '정결'이며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심판'이다.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들의 공력이 '불'로 시험 받는다는 것이다(고전 3:10-15).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 같은 믿음의 연단(벰전 1:7)을 이겨 내어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신앙 생활에 힘써야 한다.

연구자료

히브리인들의 혼인 형태 및 풍습

1. 시대별로 살펴본 히브리인들의 혼인

①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B. C. 586 이전)의 혼인: 족장 시대(B. C. 2160-1870)에는 '근친 결혼'(consanguineous marriage)이 행하여졌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의붓 누이인 사라와 결혼하였으며(창 20:12) 야곱은 외삼촌의 두 딸과 결혼하였다(창 29:16-30). 비교적 고대에는 이러한 근친 결혼이 지리적, 문화적 여건으로 인해 불가피하였는데 족장 시대 당시의 히브리인들은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전수를 위해 이러한 결혼 형태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채택하였다(참조, 창 24:4; 29:18-30). 그러나 모세 시대에는 더 이상 근친 결혼이 필요치 않게 되었으며 그보다 한 가정의 성적 순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결혼을 금하셨다(레 18:1-18). 그러나 아들이 없이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기 위하여 다른 형제가 죽은 형제의 부인과 결혼하는 '제대 결혼'(繼代結婚, levirate marriage)은 족장 시대와 마찬가지로(참조, 창 38장) 족장 시대 이후에도 계속 시행되었다(참조, 신 25:5-10). 한편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일부 일처제'(一夫一妻制)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상적인 결혼 제도임에도 불구하고(창 2:18-25) 성경에는 여러 아내를 거느렸던 자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창 25:1), 야곱(창 29, 30장), 다윗(삼하 11:26, 27; 20:3), 솔로몬(왕상 11:3)이다. 뿐만 아니라 모세 오경에도 이같은 중혼(重婚)을 허용하고 있는 듯한 귀절이 나온다(신 21:15-17). 그러나 여기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은 이같은 중혼이 종족 번식을 중요시 여기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에서 허용되었던 것이지 결코 보편화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당대의 올바른 사회상(社會像) 및 가치관을 제시해 주고 있는 지혜서에 '일부 다처제'(polygamy)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또한 사사 시대와 왕국 시대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도 일반 서민층 사이에서 중혼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확인될 수 있다.

②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의 혼인: 바벨론 포로 생활이 히브리인들의 가정 생활에 여러 가지 변화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극소수의 예외자들을 제외하고는 대개가 계속하여 일부 일처제를 준수하였다(참조, 외경 토비트). 그리고 당시의 사회는 여전히 가장(家長)이 집안의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가부장적(家父長的) 사회였으므로 배우자를 선택한다든가 그밖에 혼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일은 부모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 한편 당시의 생활 풍속을 살펴볼 것 같으면 신부(新婦)는 돈이나 간단한 결혼

계약서(kethubah)에 의해 살 수 있었으며 동거 생활에 의해서도 얻을 수 있었다(참조, 엘레판틴(Elephantine)의 파피루스). 이때 신부를 사기 위하여 지불되는 돈은 '모하르'(mohar)라고 불리웠는데 바벨론 포로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돈은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불되었다(참조, 창 34:12; 출 22:16, 17; 신 22:19). 한편 동거 생활에 의해 약혼할 경우에는 먼저 남자와 여자가 개인의 침실에 들어가서 저들의 약혼 의사를 표시하여야 했다. 그래서 저들의 의사가 합치된 후에야 비로소 동거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 C. 3세기에 이르자 율법 학자들에 의해 이러한 비공식적, 비합법적인 혼인 형태는 엄격히 금지되었으며 그 범법자들은 대중 앞에서 매질을 당하는 처벌을 받았다.

③ 신약 시대의 혼인: 초대 교회에서는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는 순결 상태로서의 처녀성 개념이 성도들간에 널리 퍼져 있었다. 물론 혼인을 하는 것이 교회 감독에 의해 정죄를 당하거나 금지되지는 않았지만 순결의 서열에 있어서 혼인은 세번째 위치를 차지하였다. 첫번째 순결은 어디까지나 절대적인 처녀성이었으며, 두번째 순결은 결혼한 후나 배우자가 죽은 후에 독신 생활을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상은 교부들에 의해서도 장려되었다. 제롬(Jerome, 345?-420)은 수도 생활의 아름다움을 역설하였으며 어거스틴(Augustine, 354-430)도 독신 생활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Clement of Alexandria, ?-220)나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Ignatius of Antioch)와 같은 교부들은 독신 생활보다는 혼인 생활에 있어서의 순결을 더 강조하였다. 그래서 클레멘트는 '성결한 이미지로서의 혼인은 그것을 더럽히는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상은 혼인을 하는 것보다는 혼인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며,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한 바울의 사상(고전 7장)에 크게 영향을 입은 것 같다. 그러나 이 같은 사상에도 불구하고 정통적인 유대주의자들 간에서는 결혼 생활이 계속적으로 장려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아내와 자식을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로 믿었기 때문이다(참조, 시 127:3; 잠 18:22). 심지어 A. D. 2-5세기에 집필된 유대인들의 탈무드(Talmud)에는 혼인을 축하하기 위해 '회중'이 모여야 한다는 규정까지 나와 있다. 그러므로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은 이러한 규정을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까지 채택하였다. 한편 세월의 흐름에 따라 결혼식과 관계된 몇 가지 요소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전통적으로 신부 집에서 혼인식이 거행되던 것(참조, 마 25:1-13)과는 달리 10세기에 이르자 혼인식은 점차 회당(會堂, synagogue)에서 거행되기 시작되었다. 그리고 엄격하게 동족혼(同族婚)만을 고수해 오던 관습도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조금 관대하여져 유대인들은 외국인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뿐 아니라 예배용 혼례 찬송의 도입이 눈에 띄게 된 것도 이 시대에 나타난 변화 중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히브리인들의 혼인 절차 및 풍습

① 약혼: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약혼은 법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는 혼인 약속(신 20:7)으로서 결혼 전에 체결되었다. 약혼은 대개 결혼 계약서나 돈을 처녀의 아버지에게 줌으로써 성립되었다. 이렇게 하여 약혼한 여자는 기혼녀로 간주되었으며 약혼한 여자를 강간한 사람은 강간죄로 돌에 맞아 죽었다(신 22: 23-27). 그리고 약혼한 남자는 병역 의무를 면제 받았다(신 20:7).

② 혼인식: 약정하였던 약혼 기간이 끝나면 실제적인 혼인식이 거행된다. 혼인식을 거행할 신랑과 신부는 특별한 치장을 하였는데 신랑은 머리에 사모(紗帽)를 썼으며(3: 11; 사 61: 10) 신부는 화려하게 수놓은 옷과, 보석, 꽃 등으로 치장하며(시 45: 14, 15; 사 61: 10) 면사포를 썼다(4:1, 3; 6:7). 이 면사포는 신방(新房)에서 신랑에 의해 벗기워진다. 신부는 친구들의 호위를 받으며 신랑에게로 인도된다(시 45: 15). 그러면 하객(賓客)들은 신혼 부부를 위해 연가(戀歌)를 부르고 축하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해 준다.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혼인 예식이 밤에 거행된다는 점이다(참조, 마 25:1-13).

③ 혼인 잔치: 혼인식이 끝나면 곧바로 혼인 잔치가 거행된다. 이 잔치는 대개 신부의 집에서 거행되는데 때로는 신랑 집에서도 거행되었다. 이 잔치는 1주일간이나 계속되는데 이때 히브리인들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겨우게 논다. 이러한 혼인 잔치가 끝나는 저녁에서야 비로소 신랑과 신부는 첫날밤을 보내게 되는데 신부는 그녀의 부모에 의해 신방으로 인도된다(창 29: 21-30; 사 15: 1, 2). 한편 면사포를 신부는 혼인식에 썼던 이때까지 계속 쓰고 있어야 했다.

④ 신부의 처녀성 확인: 혼인 첫날밤을 보내게 되면 신부의 부모는 딸의 처녀성을 증명하는 표적으로 성 관계를 가지면 생기는 혈흔(血痕)이 묻은 시이트를 보존한다. 그리하여 신랑이 신부의 처녀성을 의심할 경우에 이 시이트를 제시하여 처녀성을 증명해 주어야 했다. 만일 이때 신부의 '처녀인 표적'이 없으면 그 신부는 주민들에 의하여 돌로 쳐죽임을 당하게 된다(신 22: 13-21). 이러한 관습은 오늘날에도 히브리인들간에서 지켜져 오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의식을 일부 회교 국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히브리인의 혼인식은 완전히 끝이 났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히브리인들이 두 남녀의 결혼을 얼마나 성스러운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상 풍조는 두 남녀의 결합을 가볍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유희(遊戱)로까지 취급해 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크게 각성해야 할 문제이다.

저자 소개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 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불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 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회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㉗ 집언-아가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정가 19,000원